

H

라디오서울 한국TV매거진

Apr 23, 2024 VOL.18

radioseoul1650.com라디오서울

-미국, 로컬 뉴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서울경제 시사,경제칼럼

-트럼프때 경제가 더 좋았다고?

전미주에서 보는 H매거진
-내이션와이드 미주한국일보 뉴스

신혜원변호사 H법정스토리

-이전에 경험 못한 격동의 시대

서울경제 골프페이지

-타이거우즈-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정재윤 몰라도 되는 짧은 지식

-레이스가 아름다운 이유

이웃케어클리닉 건강칼럼

-B형 간염 검사-예방접종의 중요함

문상열 스포츠 그 뒷 얘기들

-2024 대학농구 스타는 케이틀린 클락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강철멘탈클래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NHS 스티븐조 건강칼럼

-만병의 근원-비만척결

H음악다방- 오늘 저녁 이 노래

-STAND TALL 일어나세요!

H피플-사람들

-'농구 여제' 박찬숙 서대문구농구단 감독

표지모델
샌드라리 ES ADVERTISING 대표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료 상담



Ye Ja Kim (김예자) Lic #: 0F07964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773.2939 714.872.9377

562.640.0643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한의원박사 **서영수**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213)385-3304 (산삼공사)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Best Hospitals USNews
Rock Medicine of USC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 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빠른뉴스 업데이트, 대폭개편된 radioseoul1650.com

불타는 트롯맨

TOP7 미국투어 콘서트



5월 18일, 토요일 · 7PM

불타는 트롯맨

TOP7 미국투어 콘서트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쿨라 벨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용자 나라

2자가 좋아졌습니다!
(이자)

2 13) 388-5600

US MORTGAGE WORLD INC

Email: ak4989@gmail.com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MLS#1662096

라디오서울 생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그리고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radioseoul1650.com 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방문하세요.

LA 세입자 열명중 4명이 노숙자 될까봐 걱정

지난 몇 년새, 엘에이 세입자 10명 중 거의 4명이 노숙자가 되
거리로 나왔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UCLA의 러스킨 공공 정책이 공개한 2024년 삶의 질 지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엘에이 카운티 세입자 열명중 4명은 렌트
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할까봐 우려하고 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렌트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전반에 대한 세입자들의 걱정이
늘어나면서 그로서리 가격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답한 세입자
들이 많았다.

지난 수년새 인플레이션에 주거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다. 세입자들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는 에퀴티가 없
기 때문이다.

팬데믹 거치면서 가주의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홈오
너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수십만 달러
의 에퀴티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물론 구입한 집은 아직 모기
지 페이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
택 가격이 오르면서 에퀴티는 계속 늘어난다.

세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에퀴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홈오너와 경제적으로, 심정적
으로 차이가 많은것이 현실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렌트비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세입
자들은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 요원해진다. 저축해서 다운페이를
모으려고 해도, 뛰는 집값을 도저히 따라잡을수가 없다.

이번 UCLA 조사에서 높은 생활비, 특히 주택가격이 엘에이



카운티 주민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 의해 보고된 전체 삶의 질
평가에서 삶의 질 수치는 만점 100점으로 칠때 53점으로, 2016
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생
활비 평가 항목에서는 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
입자들의 경우, 어느 인구 집단보다 생활비와 일자리,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다.

세입자중에서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LA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명중에 한명꼴도 채 안
됐다. 세입자중 절반인 51%가 LA 카운티의 경제적 미래에 대
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61%는 엘에
이 카운티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LA에서 RV밤샘 주차 금지 확대



엘에이 일원에서 노숙자 RV 주
차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
데, 엘에이 시의회가 노숙자 RV촌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금요일 엘에이 서
쪽 지대에 30 군데 스트리트에서 RV
밤샘주차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새벽 2시부터 6
시까지의 높이 7 피트 이상, 길이 22
피트 이상 차량은 해당 거리주차가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캐런 버스 엘에이 시
장의 홈리스문제 해결책인 인사이
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LA시 공무원 5년에 걸쳐 22% 임금 인상



엘에이 시의회 소위원회가 16일
엘에이 시 공무원 3만여명에 대해
앞으로 5년동안에 걸쳐 22퍼센트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도 개선
하는 새로운 근로 계약을 승인했다.

3인으로 구성된 엘에이시 감사와
채용 위원회는 16일, 만장일치로 엘
에이 시내 공무원들에게 5년에 걸쳐
총 22퍼센트의 임금을 인상하는 새
로운 근로 계약을 승인했다.

근로계약은 시 공무원의 최저 시
급을 올해부터 20달러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까지 25달러까지 인상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7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새
근로계약이 발효된다. 이번 계약으
로 엘에이 시 공무원 3만 3천450명
이 임금 인상이 혜택을 누리게 된
다.

공무원들의 업무 분야에 따라 근
로 계약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원
이나 위생국, 청소, 교통국 요원, 엘
에이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들의 경우 연내에 6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8
시까지 그레이브 야드 쉬프트 근무
를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 임
금 혜택이 제공된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기존
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늘어
난다.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공원이
나 레크레이션 시설에서 시간당, 혹
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911 오퍼레이터의 경우, 근속 6년
이 지난 경우에는 리텐션 보너스가
늘어나 임금 인상폭이 더 커지게 된
다.

새로운 근로 계약에 대해 노조측
은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 걸쳐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이 골고루 늘어났
다며 환영했다.

디즈니랜드 확장 프로젝트 승인



애너하임 시의회가 17일 디즈니랜드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디즈니는 현재 소유한 부지안에 새로운 놀이기구나 상점, 레스토랑, 호텔등을 건설할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17일 새벽까지 밤을 새로 이어진 공청회에서 주민들과 디즈니 직원, 시 공무원, 기업, 노조 등 이해관계자 2백여 명으로부터 발표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날 7대 0 만장일치로 디즈니 확장계획을 통과시켰다.

애너하임의 애슬리 엡켄 시장은 디즈니 확

장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자신도 과거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중의 하나였지만,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디즈니 확장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장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즈니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그만큼 시 정부가 세수를 많이 거둘수 있어 지역사회에 경찰서나 소방서, 공원등을 업그레이드할수 있는 자원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199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

었던 디즈니 입장에서는 새 공원과, 쇼핑몰, 외식지구, 주차장 등을 추가할수 있게 됐다. 5월7일에 2차 표결에서 승인되면 30일안에 효력이 발휘된다.

디즈니랜드포워드(Disneyland Forward)로 알려진 이번 확장 계획은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팍, 다운타운 디즈니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아우르는 디즈니리조트의 모습을 확 바꿔놓을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조닝을 변경할수 있게 되어서, 디즈니랜드 드라이브 서쪽에 있는 호텔들, 그리고 남동쪽에 카텔라 애비뉴와 하버 블러바드의 토이 스토리 주차 구역에 새로운 놀이기구, 쇼핑몰, 식당, 상점, 호텔 그리고 그외 엔터테인먼트를 추가할수 있다. 또 테마파크 근처의 공공 도로에 대한 통제권도 디즈니가 갖게 된다.

확장 프로젝트 승인 표결을 앞두고 공청회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확장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디즈니가 새로 호텔을 짓고, 상점을 들이고, 식당을 짓고, 놀이기구를 만들고 함으로써 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수천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애너하임 시정부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세수를 챙길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

장에서는 공공도로가 민영화됨으로써 지역에 교통체증이 악화될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로가 봉쇄되고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디즈니 근처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교통체증과 씨름해야하고 교통 체증, 대기 오염,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는 불만이다.

디즈니 랜드 확장 프로젝트로 애너하임시의 렌트비와 생활비가 치솟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디즈니가 애너하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확장 플랜으로 디즈니가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즈니 경영진은 자신들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리들은 이미 공원으로 가는 방문객들에 의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 프로젝트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즈니 확장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거비용이 올라간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어포더블 하우스 신축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시정부에서는 단발적인 투자에 그치지 말고 디즈니가 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C졸업식에서 발레딕토리안 연설 취소 논란



USC가 다음달 열리는 졸업식에서 졸업사를 하기로 예정된 발레딕토리안의 졸업사를 캠퍼스 안전문제를 이유로 전격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 팔레스타인 성향의 무슬림 여학생이 USC의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후 캠퍼스 안팎에서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USC가 졸업생 연설을 취소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다.

15일, USC의 교무처장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캠퍼스 안전 문제로 올해 졸업식에서는 발레딕토리안 연설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USC가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없앴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무처장은 이날 공지문에서, 졸업사를 할 발레딕토리안의 이름과 프로필이 공개된직후에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졸업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학생은 아스나타 바섬이라는 4학년 여학생으로 전공은 바이어 엔지니어링이며, 학점이 3.98 이상인 시니어 백명중에서 발레딕토리안으로 뽑힌 학생이다.

발레딕토리안이 무슬림 학생으로 알려진후 소셜 미디어상에서 신상털기가 시작돼, 캠퍼스 안팎에서는 해당 여학생의 소셜 미디어를 살살이 뒤져, 여학생이 남긴 친 팔레타인 견해부터 시작해서 여학생의 부전공까지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팔레스타인 견해를 적고, 좋아요 표시를 한것에서부터 학생의 부전공이 '인종 청소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교무처장은 협박과 비난 메시지가 캠퍼스 안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만한 수위라며 캠퍼스 안전을 위해 올해에는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타바섬은 대학이 친 이스라엘 단체의 증오 캠페인에 굴복하고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으며, 대학측의 처사를 비난했다.

친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USC가 반팔레스타인파와 반이슬람 인종주의를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비난하는등 USC의 조처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남가주 주택 중간가 역대 최고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속에서도 주택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이유는, 고소득자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올 캐쉬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남가주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질로우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6만9천8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가주의 주택 중간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것은 지난 2022년 6월로,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2022년 최고기록보다 1퍼센트가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9퍼센트가 늘었다.

지난달 남가주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벤추라 카운티에서 모두 주택 중간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엘에이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서 1% 모자라는 수치를 보였다.

높은 월 페이먼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매물이 워낙 부족한 현

주택 시장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캐쉬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캐쉬로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높은 모기지 금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가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성사된 거래건수의 상당 부분이 올 캐쉬 바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edfin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판매된 LA 카운티 주택의 23%가 올 캐쉬로 구입됐는데, 이 수치는 2021년의 올 캐쉬 바이 16%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다.

올캐쉬가 아니더라도 다운페이 50퍼센트 이상 지불하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늘었다.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집을 장만할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택을 공동 구입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랑스런 아빠와 남편이 인생목표인 마크리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 총회장

소매, 도매, 수입, 수출업무를 주로 하는 무역업에 40여년을 종사해온 마당발 마크리씨, 현재 그의 직함은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 총회장이다. 사업에 매진하여 일 밖에 모르는 남자일 것 같지만 사랑스런 아빠와 남편이 인생의 목표이며 남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를 H 특특이 만났다.



■ 제일 좋아하는 음악?

나훈아의 "사랑". 인생 여정에서 사랑 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좋아하는 직업이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있을까요? 가족은 에너지 원천, 삶의 이유입니다.

■ 앞으로 계획?

사랑스런 아빠와 남편. 남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가족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못 할 일

Mark Lee

mhancali@gmail.com



■ 나는 누구?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하는 일?

무역을 40년 하면서 소매, 도매, 수입,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잘 될때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까요.

■ 요즘 재미를 느끼는 일은?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 총회장을 맡아 90개 분과 2천명 멤버들이 분과별 대면 미팅으로 만남을 갖고 우선 친구가 되고, 서로 고객이 되어 주고, 싱글분들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희망을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서 보람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 가장 즐겨 찾는 식당 이름과 메뉴는?

강남회관. 밀반찬과 다양한 요리. 봉지 과일과 옥수수를 판매하러 오는 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단골입니다.



조선갈비

또아리 냉면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수·일 오전 11시 - 오후 9시 30분까지

목·금·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까지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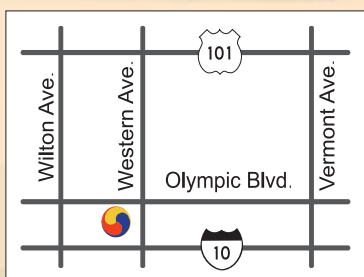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닭불고기 연어구이 우거지탕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떡국
 불고기 돼지불고기 갈비탕 따로국밥 된장찌개 알찌개 만두국 떡만두국

• 디너 메뉴

| | | | | |
|------------|------|-------|-------|--------|
| 조선갈비 (프라임) | 칠리안 | 갈비찜 | 생선전 | 조선전골 |
| 조선갈비 (초이스) | 시배스 | 갈치조림 | 잡채 | 해물전골 |
| 갈비 주물럭 | 연어구이 | 은대구조림 | 두부전 | 곱창전골 |
| 소불고기 | 조기구이 | 새우전 | 물만두 | 은대구매운탕 |
| 닭, 돼지불고기 | 이면수 | 해물파전 | 홍어회무침 | 우럭매운탕 |



직원 모집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 유경험자 환영 *

(323) 734-3807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



바버지, 버너니
메디케어 어려우시죠?
 실버시티보험을 만나면
혜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메디케어 헬스 플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Annie Lee
이애니
(818) 633-0692
Lic.#OF94321



Annie Myung Sim
심명숙
(714) 333-5161
Lic.#OF67828



Angela Chang
장안젤라
(323) 707-4242
Lic.#OB84924



Benjamin Moon
문벤자민
(213) 800-2993
Lic.#0645833



B. J. Park
박범자
(213) 595-6065
Lic.#OC65066



Connie Kim
김경미
(213) 321-0302
Lic.#OK85152



Cindy Lee
이찬용
(909) 967-9793
Lic.#0I71045



Daniel Jung
정다니엘
(213) 999-2829
Lic.#0D60367



Esther Choi
최윤경
(213) 393-1611
Lic.#OB51453



Gary Moon
문게리
(213) 505-2420
Lic.#OF92634



Hanna Gu
구현화
(213) 454-8164
Lic.#OM64324



Hee Ran Kim
김희란
(818) 751-4433
Lic.#0I25013



Helen Park
박헬렌
(213) 500-9393
Lic.#OB81853



Hyun Ja Han
한현자
(760) 780-5990
Lic.#OG72353



In Ho Paik
백인호
(213) 446-7341
Lic.#OA38972



Jae Myeong Shin
신재명
(714) 900-1599
Lic.#OH09792



Jin Sil Lee
이진실
(310) 803-0666
Lic.#OC19190



Joanne Hong
홍조앤
(818) 606-9486
Lic.#OH98253



Kyungah Chu
추경아
(310) 941-1155
Lic.#0D35285



Michelle Kim
김미옥
(562) 219-6770
Lic.#OK52268



Misun Cha
차미선
(213) 505-2087
Lic.#0I45353



Miyoung Hong
홍미영
(714) 715-6345
Lic.#0672051



Nataly Han
한나탈리
(213) 675-7898
Lic.#OE35909



Norman Cho
조남태
(213) 700-2599
Lic.#057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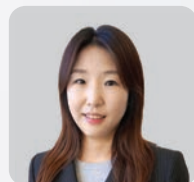
Sang Moo Shin
신상무
(562) 756-6407
Lic.#0643522



Settia Kim
김희자
(626) 348-7944
Lic.#OF36240



Stacy Joe
조스테이시
(310) 738-6703
Lic.#OE44925



Sumi Lee
이수미
(213) 302-6191
Lic.#0I29727



Sussy Kim
김성원
(562) 833-1885
Lic.#0812107



Tom Chang
장탐
(909) 702-2882
Lic.#OK98380




Yoosun Vaughn
민유선
(626) 500-7006
Lic.#OG83038



Young Seon Paik
백영선
(714) 875-2243
Lic.#OC18047



Yong Suk Won
원용석
(213) 200-3941
Lic.#OG76626

 실버시티보험에서 함께 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General Agency를 모집합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 모집

범야권 190석 압승... 민심은 매서웠다

댓글 9 2024-04-11 (목) 한국일보 미주 1면 기사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목표했던 과반 의석은 물론이고 범야권 도합 190석 가까이 획득하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사실상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시간 11일 오전 5시 기준 개표 결과(개표율 99.0%)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의 과반 의석인 174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109석을 얻어 원내 2당에 머물게 됐다. 다만 보수 궤멸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지켜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122석 중에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을 가져가며 총 102석을 사실상 '씩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석, 경기 6석, 인천 2석 등 19석에 그쳤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경기 화성을 후보 당선이라는 '깜짝' 이변을 이뤄냈다.

(중략)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장 약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다.

User_001 2024-04-11
우파도, 좌파도 아닌 대파에 대한 국민심판이다.

User_002 2024-04-11
압승 좋아하네~~~~~공짜장이 12년간 잘한 건 단 하나도 없고~~~~~고물가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펜데믹 때보다 더한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은 신용하고 국가 경제는 빛더미로 내몰리고 의료대란~~~~~이런 상황에서 공짜장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도 못 얻은 민주당의 참패지~~~~중도층의 찢겨짐이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패했다고 본다~~~~~원래 180석이었던 거보다 더 적어졌는데 무슨 압승이나

User_003 2024-04-11
아래 댓글 다신분아, 당신 참 썩스럽다. 000는 여자고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나? 조국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명품백? 그것도 민주당의 조작된 연극이었다.

User_004 2024-04-12
기 흥 너 떨고 있니?

User_005 2024-04-13
하늘이 기회를 준 걸 공이 발로 뺏겨 갔으니 나라 꼴이 좌파 빨갱세상..크하하하하마하수리 주멍이만 열면 가짜 뉴스 세뇌된 뇌로 지껄이는 댓글러 00000는 닥치세요 ㅋㅋ ㄱㄱ

미주 최고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korea times.com에 게재된 뉴스 중에 댓글로 본 관심도 높은 뉴스를 선정하여 기사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댓글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전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 korea times.com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치과의사들 불법 킥백 의료사기 피소

댓글 3 2024-04-11 (목)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 노세희 기자



최근 들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코네티컷 주정부는 지난 2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손모씨, 이들이 코네티컷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치과병원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손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달러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모집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최근에는 한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뉴욕 플라싱에 4곳의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와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User_001 2024-04-11
LA 한인타운 오렌지카운티에 한인 치과들이 엄청 많다. 임플란트는 물론 가격도 차이가 많다. 경험자로서 조언하자면 진짜 진짜 돈을 떠나서 받을 거 제대로 받아도 치료를 제대로 하는 치과, 치과장비 재료 제대로 된 치과 가서 치료 받으시라. 특히 임플란트나 신경치료는 정말 의술이 좋은 치과의사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개고생 하니까.

User_002 2024-04-11
나랏돈 가져먹다가 걸리는 사람들은 진짜로 재수 없는 사람들임~~~~~원래 가져먹으라고 있는 돈이라서 아무리 먹어 재껴도 잘 안 걸리는데~~~~~이런 사람들은~~~~~공짜장과 줄리가 신으로 모시고 성기는 천공도 사나 건진 법사를 불러다가 꾸꾸꾸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음~~~~~이 두 무당이 얼마나 용하길래~~~~~공짜장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User_003 2024-04-11
불법을 일삼는 치과 의사들 혼쭐나야됨

인플레이션 안 끝났다...美 금리인하 '더 늦게, 더 조금' 유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열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게, 더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가 멈췄다. 예상을 웃도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마지막 여정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발표된 3월 CPI는 전년 대비 3.5% 증가해 전월(3.2%)보다 올랐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8%로 전월과 같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근원 CPI의 추세를 알 수 있는 3개월 연속 상승률은 전월 4.2%에서 3월 4.5%로 오히려

커졌다.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이 별도로 산정하는 '16% 절사(trimmed-mean) CPI'도 전월 3.51%에서 3월 3.61%로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이 지표는 가격 변동폭이 큰 상위 16%의 항목을 제외시켜 인플레이션의 전반적 추세를 볼 수 있는 데이터다. 2022년 9월 이후 올 2월까지 17개월 연속 둔화했지만 3월 들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당시 예상보다 높았던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계절적인 영향"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3월 CPI

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더 이상 계절적인 요인으로 치부하기 어려워졌다. 전체 CPI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 또다시 0.4% 올랐으며 에너지 가격은 CPI 전체 상승률 중 0.8%포인트를 더했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료는 전년 대비 20% 급등세를 보였다. 애나 윙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미국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지금 점도표를 내놓는다면 아마도 올해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3월 FOMC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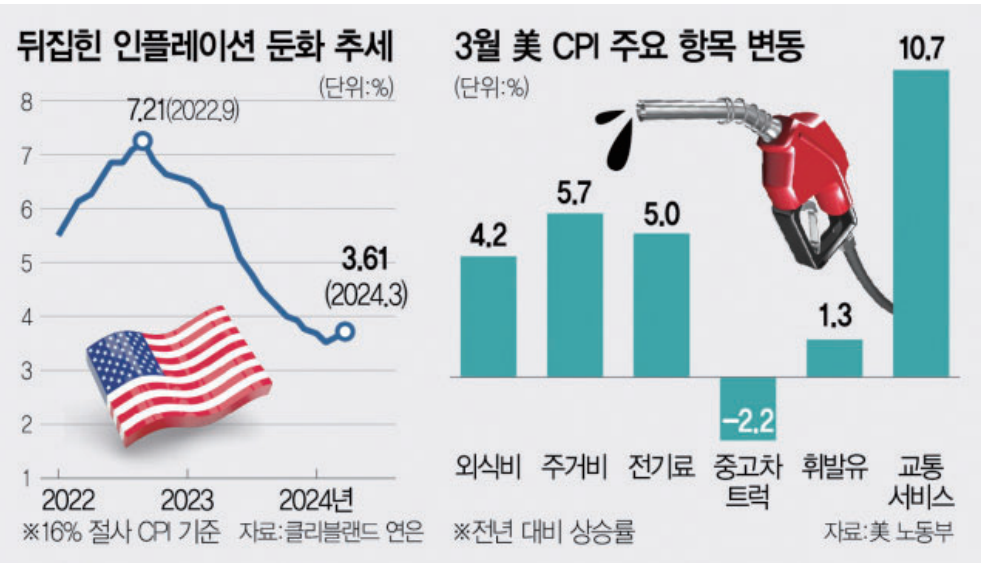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틀에 따르면 6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57.4%에서 이날 18.6%로 급감했다. 전날까지 세 차례였던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현재 1~2회로 줄었다. 올해 6월부터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다봤던 골드만삭스와 UBS는 이제 각각 7월과 9월부터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 있다"며 "가능성은 15~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치솟았다.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97%로 22bp 올라 지난해 3월 27일 이후 일일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20bp 가까이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연 4.5%를 넘어섰다. 2022년 9월 이후 최대 일일 증가폭이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09% 떨어지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11일 발표된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2% 올라 시장 예상(0.3%)을 소폭 밑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0.2%)에 부합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겨우 다 떼었는데 이번엔 승복 현수막"... 선거 때마다 쌓이는 쓰레기 무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11일 새벽부터 후보자와 정당 현수막이 떼어지고 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승복 현수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다량의 쓰레기를 만드는 선거가 반복된 셈이다.

12일 환경부의 '2020~2022년 전국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선거마다 평균적으로 1469.2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21대 총선에서는 1739.5톤, 20대 대선 1110.7톤, 8대 지방선거 1557.4톤의 현수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훼손 등의 이유로 교체되는 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한다. 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자유롭게 철거·설치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수막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각하면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 매립할 경우 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해 몇백 년 뒤 분

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제작해 활용한다. 다만 활용률은 20%대에 머무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광고인 연합 보트포어스는 현수막으로 선거 재킷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재킷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선에서도 250만 장 이상의 폐현수막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며 폐현수막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폐현수막으로 제작가능한 물품 목록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15억 원을 세워 각 지자체가 수거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현수막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열 예정이다.

(남윤정 기자)



셀프 메디케이션 열풍... 편의점 건기식 매출 32% '쑥'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sedaily.com에 실린 핫한 기사 중 미주한인들이 공감하며 읽을 뉴스를 H매거진에 게재합니다. 더 많은 기사는 경제전문지에서 종합 일간지로 독자들에게 호평 받는 서울경제 sedaily.com을 보십시오.



고객이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간식처럼 손쉽게 섭취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간식처럼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관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마그네슘, 아르기닌, 콜라겐 등 여러 영양소 원료를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4사의 건강 카테고리 매출은 4년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GS25의 경우 건강 카테고리 매출 증가율은 2021년 24.1%, 2022년 40.7%, 2023년 26.2%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편의점 CU의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2022년 41%, 지난해 26.7%던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25.9% 늘면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139480)24도 올해 3월까지 각각 15%씩 매출이 늘면서 4년째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를 때도 건강을 생각해 주 원료와 영양성분 등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GS25에 따르면 건강 관련 상품을 찾은 고객 연령대는 2030세대가 6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CU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은 고객 중 2030세대 비중이 무려 87.4%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건강 관련 상품을 찾은 이들은 콜라겐, 단백질, 아르기닌 등 다양한 원료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피로회복과 에너지부스팅 등의 효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파우치형 홍삼, 이중제형비타민 등의 상품을 자주 구매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학업이나 업무로 지친 일상에서 힘을 얻고자 건강 관련 상품을 찾는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헬스 및 뷰티 스토어, 온라인 인기 브랜드와 협업해 단독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젤리스팅형·이중제형·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올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담배 빌리려다 "거지냐?" 비아냥에... 소화기 분사하고 흥기 휘두른 40대의 최후

담배를 빌리려다 모욕을 당하자 행인들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좀 빌려 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받아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A씨가 분사하고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흥기를 들고 B씨 일행을 쫓아 가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추격을 멈췄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흥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호 인턴 기자〉



'금사과'에 이어 '금수박' 조짐... 올 여름 수박 '한쪽'도 못 먹겠네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여의 수박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정 장애와 생육 부진으로 저과중 수박 생산과 출하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63개 농가(26ha)는 일조량 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수박 모를 다시 정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월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5배 증가한 반면, 일조시간은 17시간으로 평년 82시간보다 79.3%(65시간)나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꽃가루가 나오지 않아 평년 95~98%에 이르던 수정률이 70~80%로 대폭 하락했다.

과중도 3~5kg 수준으로 평년(5~7kg)을 크게 밑돌았다.

출하 시기도 4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지연돼 물량부

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여 수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지, 농업기술센터의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에 힘입어 당도가 높고 과피가 얇아 맛과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903개 농가가 1506ha에서 수박을 재배했다.

군은 수박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여 수박 재배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수박 재배 농가가 이상기온과 경영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승 기자〉

홍준표 "한동훈 내세웠지만 국민 두 번 속지 않아"... 전략 부재 강하게 비판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1일 총선 결과와 관련, "선거운동 기간 내내 셀카 찍으며 대권놀이한 것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회견을 찾아 "이번 총선은 역대급 참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한동훈 검사)가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우파 진영의 사람들을 1000명 소환하고, 그중에 약 100여 명 이상 구속했으며 5명이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도 인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거를 맡겼으니 국민 의힘 전체가 비겁하고 비열한 집단"이라며 "참

화가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기적을 한 번 더 노리고, 한동훈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만한 중진들이 이번에 많이 살았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이후 '홍준표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2017년 경남지사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포항 해변서 가마우지 200마리 집단폐사... 대체 무슨 일 있었기에?



경북 포항 해안에서 집단 폐사한 가마우지가 발견돼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최근까지 남구 청림동과 동해면 도구리 사이 이어지는 해변에서 야생 가마우지 사체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마우지 사체는 200여 마리에 이른다.

11일 오전에도 청림동 해변에서 바닷물에 밀려온 가마우지 사체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사체는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가마우지가 발견된 해안은 지형이나 해류 특성상 내륙이나 다른 지역에 쓰

레기나 해조류가 떠밀려 와 쌓이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마우지가 서식하지 않지만 인근의 호미곶면 대동배리나 연일읍 형산강 하구에는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어디에서 서식하던 가마우지가 어떻게 집단으로 죽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 서식지 모두 최근 가마우지 사체가 발견된 해변에서 각각 15km, 8km 가까이 떨어져 있다. 포항시는 시료를 채취해 야생동물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긴 상태다.

〈문예빈 인턴기자〉

"지금 사귀는 사람의 과거 애인이요? 굳이 알고 싶지 않는데요"



연애 중인 미혼남녀 중 절반 이상은 연인의 과거 연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연애 중인 미혼남녀 300명(남성 150명,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연인의 전 연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3%는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를 알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딱히 궁금하지 않다(56.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질투심이 생길 것 같아서(17.2%), 연인을 과하게 간섭할 것 같아서(10.8%) 등이 있었다.

연인의 과거 연애 상대를 알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1.7%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남녀 별로 달랐다. 남성은 '연애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29.0%)라고 답했지만, 여성은 '특별 이유를 알기 위해'(31.3%)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연인과 자신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7%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가 '연인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62.2%)'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과거 연애를 주제로 한 대화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이들은 18.9%였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47.7%)', 연인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29.5%)', '진정한 대화를 나눌 기회였다(11.4%)'를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과거 연애 이야기가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한 이들(18.9%)은 '내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 있는 게 싫다(52.3%)'를 단점으로 꼽았다. 또 남성의 경우 '전 연인을 잊지 못한 것 같다(22.2%)', 여성은 '전 연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26.9%)'를 각각 부정적인 이유로 들기도 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달 15~18일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 ±5.66%포인트다.

〈박경훈 기자〉

"감히 내 아내를 체포해?"... 차에 '경찰 비방' 떡칠하고 경찰서 온 50대



페인트로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적힌 차량.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칠한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도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으며,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증상들 꼭 걱정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활력과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나에게 딱 맞는 호르몬 치료

- 나만을 위해 맞춤제조 •호르몬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마세요
- 백세시대 준비는 몸 안에서 부터
- 생체 동일한 호르몬은 몸을 보호해줍니다(Bio-Identical Hormone)



IV 테라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IV테라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IV테라피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치매치료신약

FDA에서 치료허락을 받은 새로운 약 치매증세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213.739.1025
266 S. Harvard Blvd. #320
Los Angeles, CA 90004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럼프때 경제가 더 좋았다고?



▶ 4년전 코로나 확산 여파 경제 추락
바이든 취임후 고용 늘고 경기회복
공화당, 사실 왜곡 '향수만 불려내'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군들이 그의 치적을 턱없이 부풀리는 한편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를 마구 잡기로 꺾어내렸다. JD 밴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첫 번째 재임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종식을, 트럼프 시절은 미국의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간 호시절을 대표한다"며 "바이든 치하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은 집단 해고를 당하거나 외국인 인력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경제 형편은 지금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더 좋았다"며 "전임 대통령 재임기에 인종 그룹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시절의 경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일반 대중도 공화당 정치인들 못지않게 트럼프 시절에 짙은 향수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격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트럼프 시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최상급 표현은 정확치 않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의 트럼프 시절에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실업률이 스콧의 지적대로 낮았던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이후 소수 인종 그룹의 실업률은 트럼

프 시절의 수치와 같거나 오히려 낮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흑인 실업률은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서 노동시장 전반의 사정을 살펴보자. 일자리는 2019년 12월에 비해 600만 개 이상 늘어났다. 연방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든 토박이 미국인들이 노동 일선에서 대거 물러났지만 밴스가 주장하듯 집단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 은퇴한 것이고, 직업을 가진 노동 적령기의 토박이 미국인 인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예상보다 빠른 고용 성장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다.

이보다 더 큰 두 번째 문제는 2019년 말 경제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좋았든 2020년으로 접어들어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대리인들은 물론 그 자신도 유권자들에게 4년 전보다 경제 형편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을 종종 던진다. 정확히 따져보면 대다수의 대답은 '그렇다'여야 마땅하다. 4년 전 우리는 코로나19 첫해를 살고 있었다.

2020년 초 많은 미국인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한 장보기 이외의 외출을 극도로 자제했다. 일부는 누군가 무책임하게 일러준 잘못된 정보 탓에 리졸을 식료품 세척제로 사용했고 생수와 화장지,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굴렀다. 경제 봉쇄 조치로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이 매일 수천 명씩 숨진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팬데믹 초기의 몇 달을 허버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에도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반면 정부의 위기 대응력을 한껏 부풀렸다.

그는 합법적인 이민제도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특정 인종 집단을 겨냥한 노골적인 입국 금지 조치, 외국 태생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여행 제한, 특히 이민자들은 물론 이민 담당 기관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정책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취업 허가를 비롯한 이민 관련 서류 처리 작업이 지연되면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경제활동 봉쇄 조치가 해제되자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의 모든 책임은 설거지를 떠맡은 바이든에게 돌아갔다.

반면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그가 취한 신속한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최근의 고용 성장과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연결됐다.

팬데믹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한 일이

라고는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 것뿐이다. 그 이후 지지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자 트럼프는 홍역 발병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광범위한 반백신 운동에 합류했다. 그가 재집권하고 또 한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게 하는 불길한 사례다. 설령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대통령의 대응 방향과 방식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팬데믹 자체가 트럼프 탓인가. 전혀 아니다. 어떤 대통령이건 임기 중 거대한 충격을 동반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대통령의 진정한 지도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충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로 평가된다. 국가적 위기는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테스트인 셈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 모두가 그의 임기 말년에 대한 채점 결과를 외면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INCE 1972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금강안경 LA점 및
가든그로브점에서 알려드립니다!**
금강안경 오픈시간이
오전 10시~오후 7시 까지
정상 영업중이며 **일요일은 쉽니다**

저희 금강안경은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하시기전 편하신 시간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시간절약은 물론, 안심하고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점 (로데오갤러리아)
213.384.1001
833 S. Western Ave. #2, L.A., CA 90005

가든그로브점 (H마트 몰 내)
714.530.1001
8901 Garden Grove Bl. G.G., CA 92844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안경,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

금강안경 검안과



LG 에어컨 에어컨
Life's Good 세계판매 1등!

Lic#. 1021077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에어컨 구입할 때, 겨울철 난방까지 생각하세요!

시시시철 상쾌한 바람... **더위에도**

추위에도

**300만불
보험 가입
전문업체**



단 하나뿐인!!
스탠드형 에어컨!
상업용, 가정용

조용한 에어컨

냉·난방 겸용 에어컨 / 공기정화 / 제습기능

4 계절 냉·난방!

- 냉방, 난방, 제습 한번에 ok.
- 초절전형 전기로 SAVING (Energy Star)
- 쾌적하게 숙면 할 수 있는 조용한 에어컨



Energy 효율이 높은 모델에 한하여 Federal Tax Credit 신청가능하니 회계사와 협의 바랍니다.

SINGLE-Wall Mount



LS090HXV, LS120HXV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LS180HEV, LS240HEV1

Mega Single Zone Wall-Mount

18,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LS307HV3, LS360HV3

Single Zone Wall-Mount

30,000~36,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Mirror



LA090HSV~LA240HSV

Single Zone Wall-Mount

9,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Gallery



LA090HVP, LA120HVP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Covers 1500sq.ft.
23 x 71 x 17"

FLOOR STANDING



LF427HV

Single Zone Floor Standing

42,000 BTU Cooling & heating

커머셜 냉장고 냉동고



Multi-Wall Mount



Multi Zone Wall Mount

18,000~5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Ceiling Cassette



SINGLE Ceiling Cassette

18,000~42,000 BTU Cooling & heating

LG 에어컨 공식 대리점 **크레딧카드 받습니다**

정식라이선스 업체
(LIC# 1021077)

SK 쿨링 213.364.4000

845 S. Grand View St.
L.A., CA 90057

01 " 세기의 재판, 트럼프 형사재판 시작 "



03 " 원.달러 환율 연일 강세... 1,400원 넘어가나? "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대한 트럼프 재판 시작됐다

(사진 - 법정에선 트럼프)

- 트럼프 : 나를 탄압하기위한 정치공세다!!!
- 검찰 : 성추문 입막음용 13만불의 회사자금 유용은 범죄다
- 시민 1 : 이런사람이 또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큰일이다
- 시민 2 : 우리 트럼프 형님을 정치탄압으로부터 구해야한다!!
- 시민 3 : 유죄인지 무죄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창피하네...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킹달러' 등극

(사진 - 원달러 환율)

- 한 모씨 : 도대체 환율은 요즘 왜 자꾸 오르는거지?
- 전문가 1 :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달러가치가 중요해지니까
- 전문가 2 : 또 미국 금리가 인하될듯하면서 당분간 인하 안한다니까
- 한 모씨 : 아~ 금리가 안내려가니까 한국의 달러도 미국으로 유입될테니 그렇게되면 한국내 달러가치 상승... 이제 이해되네

02 "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보복공격 "



자국 영사관 피습에 대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

(사진 - 이란의 미사일 공격)

- 이란 : 이번 공격은 '키사스 원칙'에 따른것이였다
- 한 모씨 : 키사스 원칙? 그게 뭐지?
- 이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슬람 율법에 있는거임
- 이스라엘 : 그나저나 300기가 넘는 미사일을 우리는 다 막아냈지롱
- 미국 : 이란, 이스라엘 이제 이쯤에서 멈추지? 나 올해 대선치러야하니....

04 " 한국의 물가인상 최악으로 치달아 "



한국내 식료품 등 각종 생활필수품 물가 고공행진

(사진 - 비싸진 한국물가)

- 한 모씨 : 세계에서 사과 1개 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이라네
- 시민 1 : 사과는 물론 식용유는 50%, 설탕 30%, 우유 20% 폭등했어요
- 시민 2 : 없어도 되는 물품이 아니라 없이는 못사는 생활 필수제품이 이렇게 폭등하는건 도대체 나라가 일을 어떻게 하는거지?
- 시민 3 : 대통령이 또한번 마트에 출동해야겠네... 그래야 가격이 합리적이되지...ㅋ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저녁 6시 "뉴스 포커스" 방송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교통사고 및 개인 상해

총 20억 달러 승소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 CZ Law.



교통사고

- 차, 트럭
- 버스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심각부상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낙상사고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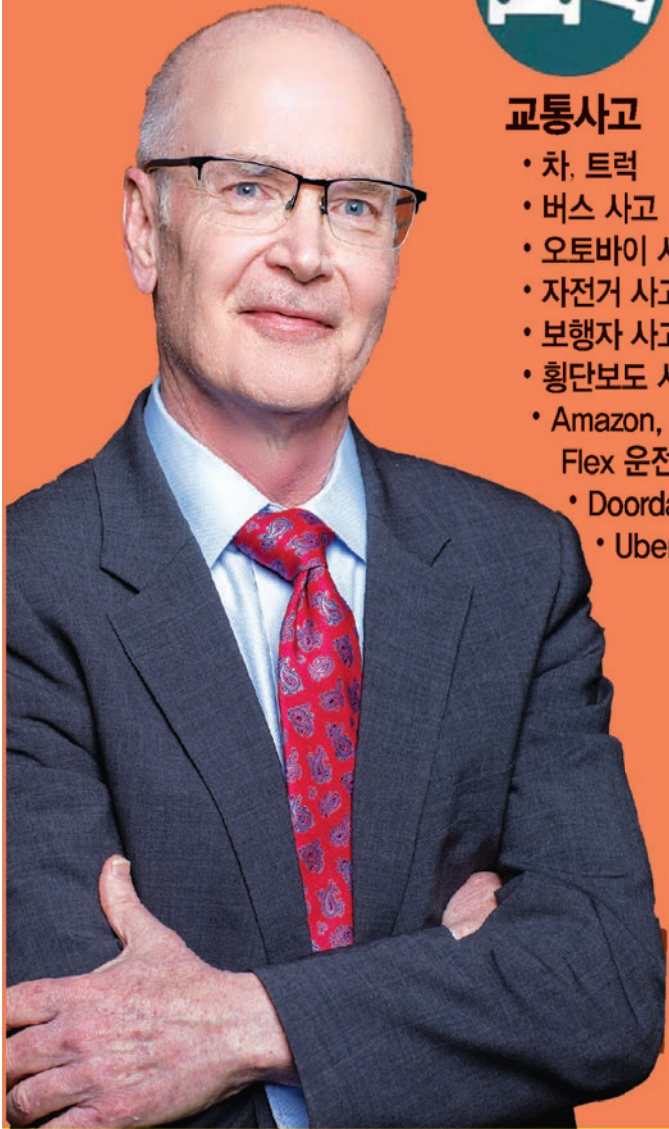
폭행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기타개인상해사건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2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상담 문의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 CZ Law 그룹

폴 주커맨



SCAN ME

www.cz.law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
Family Law

격동의 시대

어느 한국 드라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연모의 대상이 시어머니라고 폭탄 선언을 하며, 각종 코믹한 해프닝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인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 대해 너무 혼돈스럽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학교에서, 매스컴에서, 피어 그룹(Peer Group) 간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건강하고, 확고한 인식과 주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Same-Sex Marriage)에 대해 여러 차례의 엇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의 변천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008년에 합법적인 혼인을 이성 간, 즉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반대하여,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로지 남녀 간의 혼인만을 인정한다는 Proposition 8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도 그 법령의 합법적인 제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동성 간의 혼인을 원하는 커플들이 연방법원에 Proposition 8은

미국 연방 헌법의 적법절차(Due Process)와 평등보호(Equal Protection)에 위배된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Proposition 8은 미국 헌법에 위배, 위헌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Proposition 8의 집행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Proposition 8 지지자들이 연방 고등법원에, 최후에는 연방대법원까지 항소, 상고를 했지만, 결국 2013년에 캘리포니아 주 Proposition 8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굳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애 커플은 법적 혼인(marriage)이나, Domestic Partnership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이 인정하는 커플이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법적 관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의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동성 간의 혼인에 따른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이성 간의 혼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재산 분배 등에 대한 법원의 명령,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필자는 혼인제도에 대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 입장을 주장,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캘리포니아 주 혼인제도의 법적 변천, 그 역사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오렌지색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어 전화를 걸던 세대와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을 쥐고 떠드는 세대, 터질 것 같은 버스에 차장

언니가 밀어붙는대로 올라타던 세대와 무인 자동차에 탑승해 몸을 맡기는 세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말 한 마디 못하고 평생 한이 맺혔던 세대와 동성애자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며 괴롭히는 연속극에 깔깔 거리는 세대가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는 격동의 변천 시대를 살아왔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빠른 변화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여러 면에서, 오늘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대화하고, 이해하고, 도움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213)385-3773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despise [dispáiz]

1. 경멸하다
2. 멸시하다
3. 깔보다
4. 업신여기다
5. 무시하다

She **despised** gossip in any form.
그녀는 어떤 형태의 소문이든 **경멸했다**.

You should not **despise** a man because he is poor.
가난하다고 그를 **깔보아서**는 안 된다.
Even his servants **despised** him
하인들조차도 그를 **멸시했다**.

내몸에 좋은 **H** 꿀팁 굴 (Oyster)

굴은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굴은 항산화 작용을 가진 아연과 세레닌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철분과 비타민 B12를 함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 강화에 좋은 음식이다. 굴이 남성 정력에 좋다는 옛말은 사실이다. 굴에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돕고 정자를 형성한다. 또 아연은 피부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피부가 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여드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일반 남성은 한 번 사정할 때 약 5mg의 아연이 배출되는데, 굴 100g에는 약 90mg의 아연이 들어있어 부족한 아연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RADIOSEOUL
www.Radioseoul1650.com

라디오 서울, OC한인상공회의소 주최

효도큰잔치

어버이날을 맞아 초대가수 **전영록**과 함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젊음 오빠 전영록과 함께 공연도 즐기시고
푸짐한 선물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플러튼 은혜한인교회에서 뵙겠습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일(수)**
오전 10:00

• **장소 :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초대가수 : 전영록



공동주관



협찬



디지털 마케팅, 다문화 마케팅을 리드하는 아시아 종합광고대행사 ES 애드버타징 샌드라 이 대표



아시아 종합광고대행사 ES 애드버타징 샌드라 이 대표가 이번 H매거진의 커버 인물로 선정됐다.

샌드라이 대표는 다문화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풀서비스 광고 에이전시 ES ADVERTISING을 이끌어 오고 있는 여성 CEO이다.

1999년 이 대표가 설립한 ES 애드버타징은 2005년 이후 미국 탑 10 아시아 종합광고대행사 중 하나로 성장한 회사이고, 2022년에는 주류를 포함한 미전국 탑 50 마케팅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특히 ES 애드버타징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다문화 마케팅, 인적 자원관리, 다양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뛰어난 마케팅 실적을 이뤄 왔다.

2023년에는 포브스 (Forbes)가 선정한 '2023년도에 주목할 만한 여성 기업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한 이대표는 한인은 물론 아시아안으로서는 유일하게 한인 여성이 선정되기도 했다.

포브스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 대표의 조언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ES 애드버타징 회사가 제공하는 전략적 솔루션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샌드라이 대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바탕으로 LA시 관광위원회 커미셔너로도 활동했으며 여성비즈니스오너협회, 아시아인 아메리칸 광고협회 등 다양한 조직,단체에서 활약한 바 있는 대단 경력의 여성 기업인이다.

"저는 E.S. Advertising 사장 겸 대표이사로

서 이 다양한 시장을 전문적으로 공략합니다. 저희 회사는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마케팅 회사로 다문화 기업들이 주요 클라이언트입니다." 라고 샌드라이 대표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디지털, 소셜 미디어, 홍보를 포함한 서비스의, 맞춤형 홍보와 행사, 전통적인 광고, 고객의 독특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시장에 대응하기위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sandra@esadvertising.net



아시아 광고협회 이사진 회의 -미전국 아시아안 대행사 대표들





어거스틴김 CPA
- Real Estate Broker
- CMA, MLO

렌트보다는 집을 사라



CPA 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이 렌트로 살기보다는 집 구매의 장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우선 집이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한다.

한가지 예는 신혼 부부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다가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에게 좀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거나, 자녀가 커서 각자의 방이 필요한 경우에 집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 집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틀리고 가정마다 틀리다.

사람마다 틀리고 가정마다 틀린 이유보다는 필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자 한다.

필자가 손님들에게 집을 사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렌트를 살면 그 렌트는 땅바닥에 버리는 돈이지만, 집을 사면 그 집에 대한 자산(Equity)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해 준다. 즉 개인적 자산 증식을 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똑같은 3천불로 렌트를 10년 사는 사람은 3십6만불을 그냥 주인에게 갖다 주는 셈이 되지만, 집을 사서 3천불의 물게지 페이를 한 사람은 원금만큼은 자기 자산으로 남게된다.

실제 예를 들면 6십5만불 짜리 집에, 2십만불

다운하고, 45만불을 은행에서 6.5% 이자율로 30년 고정으로 집을 살경우에, 한 3천불 정도를 원금 이자로 매달 페이 하게 된다. 10년 정도 페이를 하면 상기 렌트의 예처럼 3십6만불을 은행에 납부하게 되지만, 10년 후의 원금 상환금 만큼 즉 7만5천불의 자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30년 동안 물게지 페이를 완료한다면 4십5만불의 순 자산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자비용으로 총 페이 금액은 렌트보다는 많이 지불하였겠지만, 렌트는 자산 증식이 없지만, 집구매는 자산의 증식이 있다는 점에서 렌트보다는 집구매를 추천한다.

또 한가지의 자산 증식 방법은 집값의 자연 상승이다.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 값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한번 상승된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셀러들이 집값을 떨어뜨려서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다. 진짜 급하게 집을 매물로 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는 올라간데서 조금은 내리겠지만 큰 폭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집값의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발생되고 그에 따른 개인 자산의 증가는 당연하다.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집을 통한 펀드 조달이 가능해 진다는 셈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담보 대출 한도(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를 통해 당장 몇 만불이 필요할 경우나 비즈니스 투자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라인 어브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한도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10만불 라인 어브 크레딧을 받아 놓으

면, 10만불을 만큼 은행에서 필요한 때에 가져다 쓸 수가 있고, 돈이 생기면 편한 시간에 다시 갚을 수 있다.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좀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남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은행 라인 어브 크레딧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가 있다. 또한 내가 아는 지인은 라인 어브 크레딧으로 삼십만불 정도 빌렸는데, 그것으로 자기 사업을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본적이 있다.

세금 혜택 차원에서도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하는 국가이다.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5십만불까지 양도 소득세를 폐지했다. 즉 부부가 집을 사고 나서 5년 정도 거주하고 나서 그 집을 팔 경우, 양도 이익 중 부부 합산인 경우 총 5십만불까지는 세금이 없다. 가령 5년 전에 5십만불 주고 집을 샀는데, 5년 후 1백만불로 집을 판 경우, 그 차액의 5십만불이 세금 면제인 것이다.

집을 사는 경우의 세제 혜택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한다면, 매달 물게지 이자 부분과 재산세를 세금 공제 금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물게지 이자 부분과 재산세는 그 단위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세금 공제 금액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금 공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세금은 적게 납부해도 된다는 말이다.

정리해 보면, 집을 사야 하는 이유는 1) 자산의 증식 2) 펀드 조달 그리고 3) 세금 절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을 사야 되는가? 질문의 답변은 "사세요." 이다.

(562)832-3479
usalacpa@outlook.com

musicplaza.com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뮤직플라자 (213)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FALCON

홈쇼핑월드 LA점
확장이전기념 **세일가**
\$4,490



오직, 홈쇼핑월드에서만!
아주 획기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두 다리의 자유로 경험하는 코어근육 스트레칭
장요근 이완, 사이클 운동, 전신 스트레칭, 하체 스트레칭 등
새로운 형태의 마사지 패턴인 로보워킹 테크놀로지기술 탑재

팔콘 마사지 체험은 엘에이/부에나파크 점으로 오세요!

레이스(Lace)가 아름다운 이유



호주(Australia)는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계절 기후가 반대이다. 그래서 호주는 12월~2월이 여름인데 이때는 기온이 무덥지는 않을 정도의 따뜻한 편이고, 겨울인 6월~8월의 경우는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에 불과하여 사철내내 꽃이 핀다.

그래서 호주 땅을 처음 밟은 유럽인들은 호주는 양봉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땅이라고 믿고 유럽에서 호주로 벌통을 옮겨날랐다. 첫 해는 대박이었다. 유럽에서 한 해동안 거둘 수 있는 양의 몇 배나 되는 벌꿀을 생산해 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벌들이 꿀을 따러 나가지 않고 벌통속에서 놀기만 할 뿐이었다.

양봉업자들은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곧 원인을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벌들은 꽃이 피지 않는 겨울을 대비하여 미리 충분한 식량비축을 해두기위해 꿀을 따다 벌통속에 모아두었지만 1년 내내 날도 따뜻하고 꽃도 많은 호주에서 굳이 월동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지난 여름, 전세계를 강타한 신발이 있다. 바로 어글리 슈즈(Ugly Shoes)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FILA)는 어글리 러닝슈즈 <Fila Tracer>를 출시했다.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걸을 때 느껴지는 생동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그러나 모양이 투박하고, 디자인이 조잡한 못생긴 신발이었다.

그동안의 기능성 신발들도 기능에 초점을 두느라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뺏아내지 못하여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는데, 편리하고 편안한 기능만을 강조하며 아예 아주 못생긴 신발을 만들어 냈더니 오히려 대박을 친 것이다.

이탈리아 컨템포러리 브랜드 마르니도 최고의 소재에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디자인과 촌스러운 색으로 아주 못생긴 '빅 풋 스니커즈'를 선보였고, 발렌시아가는 '트리플S'를, 루이비

통은 '아치라이트', 구찌는 '와이톤', 샤넬은 '트레이너'라는 어글리 슈즈를 출시하여 대박이 났다. 기능에 디자인까지 완벽했다면 오히려 이런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화 <God Father>를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난 영화의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힘이 난다. 영화를 완성하고 나면 더 얻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족한 예산과 스태프, 완벽한 시나리오와 화려한 출연진들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제품도 사람도 완벽하면 오히려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레이스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수도 없이 뚫려있는 구멍들 때문인 것이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 조금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정재윤

방송인, AdSense 대표



볼 빨개지는 이야기

키스 해주세요

키스...사랑하는 사람간의 애정을 표현하고 교감하는 방법. 키스가 좋은 포인트 몇 가지.

1. 정신적 안정감 2.스트레스 감소 3.면역 시스템 강화 4.육체적, 정신적 유대감
-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로 정신적 안정감.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 "코티졸" 분비 억제로 스트레스 감소 효과. 각종 통증을 억제해주는 엔돌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면서 강렬한 쾌감까지 주는 게 키스라고 한다. 자,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 한번?

아재아재 개그코너

* 저팔계가 정육점에 가서 하는 말?

-저 팔께요.

*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 이승갑~니다(이승기 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박보영(바보영)

* 미술학과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캔버스

* 설경구가 녹으면?

-물경구

* 사람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흥기는?

-머리칼

* 수박이 한 통에 천원 두통엔?

-게보린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재정에 관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택스 리턴의 계절을 지나며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마음 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 추측을 하지만 사실 돈이 많은 분은 많은대로, 또 없는 분은 없는대로,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의 미국인이 돈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발표한 것만 보아도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듯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없는 '돈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며 살아 간다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에 큰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의 수면과 기분, 체중과 식욕, 자존감과 삶의 기능 그리고 인간 관계등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과 인생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마음 고생을 했던 아동 시절이 있는 사람일 수록 청년이 되었을 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서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학업의 지장은 물론 사회성 그리고 우울증, 불안등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노인일

수록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 기능장애들이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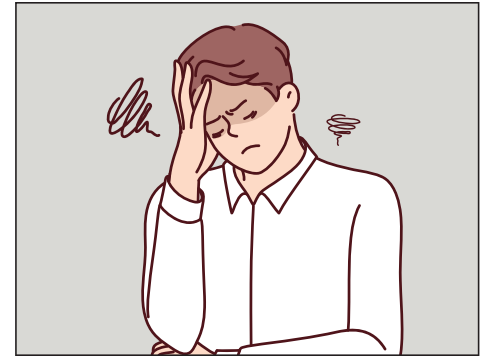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자각하고 인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에 관한 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스트레스와 주관적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스트레스란 실제적인 빈곤, 또는 직업을 잃었다든지 부채가 너무 많아 갚을 방법이 없다든지, 갑자기 큰 돈을 써야할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이 부족하다든지 등의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재정 스트레스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스트레스는 사실상으로는 특별한 경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과 우울감을 갖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심리적 문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겪고 있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으로 구별하는 것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객관적인 부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그 빚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에서 부채의 액수와 스트레스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빚의 액수는 고소득 가정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채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소득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부채 액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그리 크게 받지 않는 반면, 저소득 가정은 액수에 상관없이 돈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부채의 액수가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 끔찍한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것은 수치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과 얘기를 하다보면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견해가 달라지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2. 재정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재정 상담 프로그램을 찾거나 지인중에 경제에 밝은 분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 가족과 함께 고민하세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 재정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양육이 아닙니다. 물과 전기를 아낀다든지, 용돈을 줄인다든지, 파트 타임의 일을 구한다든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정에 대한 문



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도울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녀에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4.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해결할 자신이 없어 오히려 그 부분을 덮어놓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에 관한 모든 부분의 인벤토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을 정리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5. 재정에 대한 계획과 해결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반드시 하나씩 수행합니다. 예를들어 씬스미어를 줄인다든지, 매월 예산을 짚는다든지, 크레딧 카드를 낮은 이자로 옮긴다든지, 정부의 베네피트를 신청한다든지,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거나 세컨드 잡을 구하는등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하나씩 문제 해결을 향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6. 건강한 식사와 수면, 운동,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는 강철 멘탈을 갖기 위한 훈련등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신감을 키워갑시다.

ssung0191@yahoo.com

아세요 이말? 이렇게 깊은뜻이!

실랑이

웁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 견디게 구는 짓. 과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되면 예복을 갖춰 입고 증서를 타러 나가야 한다. 이 때 부르는 구령인 '신래(新來)위'에서 온 말이다. 흔히 '신래 불리다'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을 때 선배들이 짓곳은 장난을 했다. 희묵(戲墨)이라고 하여 얼굴에다 먹으로 앙팡이를 그리고 옷가지를 찢으며 '이리위, 저리위'하며 앞뒤로 오랬다 가랬다 하면서 몹시 놀려뒀던 것이다. 기강을 세운답시고 신입례(新任禮)를 거창하게 치르던 데서 비롯한 말이다. ※ 앙팡이 : 정월 초하룻날 밤에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는 아이의 신발 중에서 제 발에 맞는 신을 신고 간다는 귀신, 신을 잃어버리면 그 해의 운수가 불길하다는 속설이 있었다.

실랑이하다 : 이러니저러니, 웁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다.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다.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시도지교 市道之交

市(저자시) 道(길도) 之(갈지) 交(사귌 교)

시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뜻으로, 단지 이익만을 위한 교제를 이르는 말이다.

나는 너랑 여태까지 속 깊은 말도 편하게 주고 받는 중요한 관계인줄 알았는데 너는 그저 나를 시도지교로 만나왔구나. 아ㅏㅏ
즉,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 우리가 살아가며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케디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이م 차돌+USDA 초이스 양념갈비+USDA 초이스 생갈비+프라이م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이م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
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허밀+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져보고가자!

LUNCH **\$37⁹⁹** +TAX

DINNER **\$43⁹⁹** +TAX

33 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 된장찌개 **\$21⁹⁹** +TAX

해장촌 특선 런치 **\$17⁹⁹**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17⁹⁹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ui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전국 투표율 67.0%, 전국 사전투표율 31.3%이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개표결과 지역구 254석을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1석, 진보당1석으로 나누어 가져갔고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했다.

종합 개표결과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총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 108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80석을 넘겼고 국민의힘은 참패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은 사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사승의의 기대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하고 국민의 힘은 철부지급의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실감해야한다. 즉,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해야하고 정권심판의 결과지를 받은 현정권과 여당은 긴장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에서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직후 나오기 시작했다. 수도권이 야당대세였던 상황에서 서울 강북지역에 유일하게 당선된 김재섭 도봉갑 당선자가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반대해 왔는데,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의 의미에 치중된 것을 고려하면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사쇄신은 물론이고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이 필요해보인다는 의미의 발언들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특검법'정국을 본격화할 전망이

다. 21대 국회 내 '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처리를 압박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범야권이 '특검법'을 밀어붙일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승전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현정부와 여당을 더욱 옥죄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집중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민생안정'이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과연 국민들이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 또한 긴장해야하는 이유다. 앞으로 어떤 형이 내려져 확정되느냐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달려있고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대권도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 권력은 언제나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만구 교동 짬뽕
전미주 지점 오픈 문의
Eddie Kang
(213) 434-3996

인터넷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스펙트럼



인터넷 - 300mb, 500mb, 1Giga (\$29.99/500mb)

- TV** - TV latino stream (45+ channels)
- TV stream (80+ channels)
- TV Choice (15 channels)
- Mi Plan Latino (140+ channels)
- TV Select Signiture (150+ channels)
- TV Select Plus (160+ channels)

집전화: \$19.99 (국제전화 무제한 \$5 추가 / 전세계70개국)

핸드폰: 1년 무료 (버라이즌 네트워크 사용 + 스펙트럼 핫스팟 사용)

※ 지역에 따라 적용 할인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희 David Seo / Residential Connectivity Specialist
핸드폰 310-713-8286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짠』

“우리 문명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으니깐요.”

지난 3월2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시리즈 '삼체'에서 나온 말이다. 시즌 1 총 8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중국 작가 류츠신의 '삼체'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판근한 이미지들로 낯선 외계의 모습을 투영해내는 드라마로 이제껏 보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삼체'는 물리 용어로 세 개의 질량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중력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다루는 분야를 한다고 한다. 또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외계인은 세 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진 태양을 가진 곳에서 살기에 '삼체인'이라고 일컬

어지기도 한다.

쉽게 다가가기에는 중간 중간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여럿 가지고 있어서 추천하고 싶다.

위에 나온 대사를 중반부를 지나면서 외계인들과 교신을 한 이유를 묻는 형사의 말에 추종자의 한 사람이 전한 말이다.

단순히 드라마적인 해석 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 모습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사가 떠오른다.

"참 역겹죠? 인간이 나악한 존재라는데.", "당신이 아는 걸 조심해요.

거기서 당신 문제가 시작되니까." 등이 있다.

광대한 우주 안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인 뿐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인생작이 될지 모르겠다.

과연 이 대사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우린 무엇을 믿고 사는 걸까?

드라마에서는 외계인을 따르며 기다리는 이들이 외계인을 'LOAD'라고 부른다. 그리고 작은 마이크와 스피커로 그들에게 지시를 받고 또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목소리는 컴퓨터에서 내는 목소리처럼 들린다.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 속

도로 볼 때, 어쩌면 우리 이미 현대 문명 안에서 우리가 만든 문명에 지배를 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닐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아직 2편을 남기고 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또 2번째 시리즈는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 궁금해진다.

드라마를 다 보고나면 아마도 2015년 휴고상을 받았던 류츠신의 원작 소설을 구해서 읽게 될 것 같다. 작은 상상 안에서 더없이 넓어지는 세계관과 메시지는 쉽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무게가 있는 것 같다.

우린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treeandmoon2022@gmail.com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MBTI 코너

mbti별 연애 시단점 ①

마이어스와브릭스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로 혈액형 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사방법 - www.16personalities.com (한국어 선택, 12분 정도 소요)



카메라를 대보세요 ↑

1. ENFJ
애정확인
2. ENFP
과한매력
3. ESFP
쉽게질림
4. ESFJ
소극적

- | | |
|-------|-------|
| 외향형 E | 내향형 I |
| 감각형 S | 직관형 N |
| 사고형 T | 감정형 F |
| 판단형 J | 인식형 P |



"한인 이민자들에게 미국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피제기
- 페이스북 <오늘의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은퇴 할 나이가 되면 왜 고국으로 영주 귀국을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을까? 아마 그것은 회귀 본능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이방인으로 미국에 오래 살아도 이 나라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만해도 아메리칸 드림과 할리우드 영화의 환상에 빠져 미국 이민을 오기 전에 대부분 한인들은 미국을 천국으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고 미국가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하기 싫은 힘든 육체 노동 일은 이민자들이 도맡아야만 했다.

또한 남 모를 사연의 서류 미비자들의 삶은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비해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남들에게 서류 미비자라고 말도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

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언제 이민국 단속반에 걸려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며 자살을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이민 한인 성인들 중에서 19%가 자살 시도를 해 보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12세에서 17세의 한인 청소년 중에 29%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 설문 조사를 볼 때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영어 소통에 큰 문제가 있고 미국 사회에 잘 동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가파르게 오르는 캘리포니아의 비싼 주택값과 비싼 아파트 렌트비에 고물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준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 갈등은 심해지고 잦은 싸움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사춘기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민자의 현실은 1세대 2세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 마약에 쉽게 노출이 되고 부모가 일로 바빠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면 탈선의 위험과 정신 건강은 상당히 피해를 진다.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에 잘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 부모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입학과 졸업을 해야하는 스트레스와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을 잡기위해 마음 고생이 심하다. 이러한 미국 적응의 과정이 잘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울증과 자살 충동등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민자의 삶을 생각하면 미국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미국의 밝은면을 보며 잘 적응하는 이민자들도 많기에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고나면 미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 할 날이 올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서 살던 적응하기 나름이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 이든 이민을 간 다른 나라이든 그곳에서 잘 정착하면 그 곳이 제 2의

고향이 되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미국 한인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 한국인은 어디서 살든 적응을 아주 잘하는 성실한 민족이기에 힘들음 힘들음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나라 이민자들 보다 미국에 잘 정착을 해서 모범적인 이민자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길 바란다.



시니어 생활 상식

공동부담액 <코페이> (Copayment <Copay>)

귀하가 서비스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서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먼트를 지불합니다. 또한 '코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녹내장 Glaucoma [glaukəʊmə; glɔːkəʊmə] 글라우코우머, 글로코우머

Medication helped reduce the pressure on her eyes due to glaucoma.

그 여자는 약물치료를 받고 녹내장으로 높아진 안압을 낮추었다.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라디오서울과 서울경제가 만드는 경제라디오프로 '라디오서울경제'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서울경제 기자들의 생생경제리포트
일요일 오후 5시30분 AM1650 라디오서울
YOUTUBE 라디오서울 채널,
라디오서울 앱에서 청취하세요.



안젤라 장 Lic.#OB84924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작아진 에뮤의 날개



캥거루나 코알라는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유명한 동물입니다. 넓은 호주 땅에는 이렇게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그중 '에뮤'라는 큰 새가 있습니다.

몸길이는 190cm에 달하며 몸무게는 최고 60kg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최대 50km/h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물에서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다 큰 에뮤는 인간 외에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을 피해 날아서 도망칠 필요가 없고 호주의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사냥을 위해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점점 쓸모없어진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퇴화해서 날개가 몹시 작아져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락하게만 살면 갖고 있던 능력도 결국에는 사장돼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힘차게 펼치던 커다란 날개가 편안함과 게으름에 쪼그라들어 쓸모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주도 안쓰면 녹슬게 마련입니다.

피아니스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젊었을 때 손재주가 있어 무엇이든 잘 만들었는데 안쓰다 보니 이제는 무얼 만들어 놓 사람들 작품을 보고 감탄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꽤 괜찮게(?) 만들던 요리도 점점 안하다 보니 한끼 사다 먹는게 더 경제적이라 하면서 점점 더 손도 안대고 게을러 집니다 그러다가 손님이라도 오신다 하여 뭘 좀 만들려고 하면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몸의 근육도 안쓰면 퇴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여행 중에 특별히 온천을 많이 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쳐다보니 근육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나 비슷비슷한 체형이 되어 있어서 서로를 쳐다보며 민망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몸이 쩡쨍해서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는 GYM 에 다니면서 근육운동을 꾸준히 한다면서 늙었다고 걷는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근육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그래야 하겠다 하고 결심했지만 미국 도착하니 시차 적응하라 밀린일 처리 하라 근육운동 결

심은 벌써 저 만치 날아간듯 합니다.

편안함과 게으름에 쪼그라들어 쓸모없어진 에뮤의 날개처럼 퇴화된 근육을 깨어 일으키려면 사장되어 있는 GYM Membership 부터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모든 시니어 플랜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ym Membership 혜택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323-707-4242

지나온 30년, 새로운 도약의 30년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



1994년 4월 오픈한 LA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가 30주년을 맞았다. 30년을 한 자리에서 변함 없이 운영해온 팔레스뷰티는 어느덧 LA 한인사회의 미용과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처럼 뿌리 내렸다. '아름다움이 한 곳에'라는 표어는 참 잘 어울린다.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 신디 조 사장은 "예쁘게 만들어 주는 물건은 다 갖춰놓자는 다짐으로 다른 업소들보다 매장 규모도 세너배 크게 시작했지요. 비슷한 업종의 매장들 때문에 아이템 선정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 아닌 한남체인 마켓에 첫 번째 매장을 얻었던 것이 행운

이었지요."라고 말했다.

팔레스뷰티 한남체인점은 조사장이 나드리 화장품 미주총판을 시작한 지 6년만인 94년에 열었다. 단일 매장에서만 연간 300여만 달러씩 매출을 올릴 만큼 조사장의 미용비즈니스에 젖 줄이 되고 있다. 주차여건 좋고, 사람 왕래가 많은 로케이션의 장점도 크겠지만 '고객지향적인 영업'이 아니었다면 팔레스뷰티의 이름값은 지금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조사장은 단언한다.

"손님이 찾는 물건이 뭔가를 최우선적으로 챙겼지요. 없으면 다음에 찾아왔을 때 반드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팔레스뷰티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다 보니 조사장이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판매 원칙은 사실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 돼버렸다. 미용 백화점, 헤어살롱, 용품매장, 스킨케어, 학원 등 미용 관련 비즈니스를 한자리에 모은 종합뷰티 센터 설립이 꿈이라는 조사장은 윈스탑 미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험과 기반이 충분하기에 머지 않은 장래에 번듯하게 실현하려 한다

고 밝혔다.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는 30주년 기념 세일을 4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품목 20% 할인. '일부 품목 제외'라는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면서 현재 1+1, 30%, 50% 등 세일하는 품목에도 이중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모다모다삼푸 초특가 세일을 진행하는데 한 병 \$9.99, 일인당 5병 한정으로 판매한다.

조사장은 "말뿐인 할인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할인 이벤트로 30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5월 가정의 달 전에 미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모든 제품에 20% 할인을 적용해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남체인 옆 팔레스뷰티가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의 30년도 고객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형 간염 검사·예방접종 중요



5월은 간염 인식의 달(Hepatitis Awareness Month)입니다. 5월 19일은 간염 검사の日(Hepatitis Testing Day)이기도 하고요. 간염하면 한인들이 B형 간염(Hep B)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사실 A, B, C, D, E와 알코올성 간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인, 한인들의 유병률이 높은 B형 간염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B형 간염은 감염의 지속기간에 따라 다시 급성(acute)과 만성(chronic)으로 나누는데 6개월 이하의 급성,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간염으로 구분합니다. 급성 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전신 피로감, 발열, 근육통, 구토, 복통, 식욕감퇴 등 감기, 몸살과 비슷합니다.

심하면 황달, 짙은 갈색 소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를 처리해 별다른 치료 없이 6개월 내에 완치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완치되지 못하고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은 HBV에 감염된 뒤 HBV가 평생 몸 속에 남아 질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소리 없이 간을 손상시켜 간경변증, 간경화, 간부전, 간암을 포함해 치명적인 간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B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간암 요인입니다.

문제는 B형 간염에 감염돼도 대부분 증상이 약하거나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B형 간염 감염자 3명 중 2명은 증상이 없으며 3명 중 1명은 본인의 감염, 보균 사실을 모릅니다.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B형 간염은 감염 경로에 따라 태어날 때 B형 간염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감염이 되는 수직감염과 출생 이후 감염되는 후천적, 수평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감염된 경우에는 완치율이 거의 0%에 가깝고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 발전합니다. 후천적 감염증은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의 혈액, 타액, 정액 등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살균하지 않은 주사바늘, 상처받은 점막이나 피부, 무방비한 성 접촉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당뇨 측정기 같은 의료용품, 귀걸이 등 개인용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유, 기침 또는 재채기, 키스, 신체접촉 등으로 확산 또는 감염되지 않으며 B형 간염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거나 식기, 조리용품,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한다

고 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린 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검사입니다. HBV 검사를 받으면 현재 또는 과거 감염 여부, HBV 보균 여부, 면역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간단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혈액도 소량만 채혈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혈액검사처럼 공복에 채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치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어 감염자 또는 보균자가 오랫동안 또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이 같은 간 손상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수직감염도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반드시 B형 간염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부 외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부모가 아시아 국가 출신인 사람, B형 간염 감염자/보균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또 자주 수혈이나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의료계 종사자 등도 감염 및 보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B형 간염은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은 신생아 때 접종할 것이 권고되며 이 때 맞지 않았다면 영유아 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발전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5살 미만 영유아 시절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아동기, 청소년



에릭 솔더버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에 맞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은 19~59세 성인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2회 주사하거나 백신 종류에 따라 6개월에 걸쳐 3~4회 접종하면 됩니다. B형 간염이 있는 산모는 출산 전에 반드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해 신생아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염 발병률이 높은 나라 여행 전 백신 접종을, 후에는 검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앞서 언급했듯이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상황에 맞는 치료로 간 손상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간에 좋다고 해서 함부로 약품이나, 한약재,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사와 치료는 반드시 주치의, 담당의와 상의하고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B형 간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접종하세요.

▶문의: (213)235-1210

www.lakheir.org



메디칼 있어도 의사 찾기 힘들시죠? 보험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시나요?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오세요. 저희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 한인 의료진 및 한국어 통역서비스
- 메디칼(Medi-Cal) 환자 환영, 저소득층 프로그램 가입 지원
- 진료과목: 주치의 · 부인과 · 소아과 · 치과 · 검안과 · 정신건강 등
- 신속한 한인 전문의 리퍼, 각종 암 검사 제공
- 일반보험(PPO, HMO), 메디케어 등 모든 보험 환자 진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만나세요
213.235.2800

(구) 건강정보센터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ommunity Clinic



In New York

뉴욕주, 한국출생자 가장 큰 폭 감소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기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기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 times.com 을 보십시오.

In Toronto

사기피해 고객들 집단소송 준비 140명 "몬트리올은행이보상 거부"



자동이체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몬트리올은행(BMO)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CBC방송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고객 140여 명이 그룹을 형성, 은행을 고소하기 위해 버르고 있다.

신규이민자를 비롯해 의사, 엔지니어,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이 그룹을 조직한 리사 윙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피해액은 150만 달러로 추산된다.

윙의 피해액은 1만5,500달러이며 토론토 교사 조저 이콥스는 2만 달러를 잃었다.

80세 시니어 에밀 랜드리는 2만2천 달러의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

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은행 측으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몬트리올은행이 보상을 거부하는 근거는 이렇다.

자동이체 때 정확한 비밀번호가 사용된 점,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보내준 임시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된 점, IP주소가 고객들의 것과 일치한 점 등이다.

자동이체 사기는 누군가 가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훔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행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이체 사기는 추적이 어려워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한국 태생 한인 인구 추이

| 주 | 2010년 | 2022년 | 증감 |
|-----|-----------|------------|-----------|
| 뉴욕 | 10만4,758명 | 8만2,786명 | -2만1,972명 |
| 뉴저지 | 7만242명 | 7만512 270명 | 270명 |

<자료: 센서스국>

뉴욕주가 미 전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이 9일 발표한 2022년 미국내 외국 태생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한국 태생 한인 인구는 2010년 10만4,758명에서 2022년 8만2,786명으로 2만1,972명 감소했다.

뉴욕주의 한국 출생자 감소는 미 전체 주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한국 출생자가 2만1,801명 줄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소율로 보면 뉴욕주는 20.97% 줄어 캘리포니아의 6.47%보다 훨씬 높다.

뉴욕주에서 한국 출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플러싱 등이 속한 뉴욕시 퀸즈에서 감소세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퀸즈의 한국 출생자수는 4만9,736명에서 3만4,829명으로 1만4,907명 줄었다. 맨하탄에서도 1,585명 감소하는 등 뉴욕시 5개 보로 모두에서 한국 태생 한인 인구가 감소했다.

뉴욕주 64개 카운티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 출생자가 증가한 곳은 낫소카운티(800명) 등 13개 카운티에 불과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한국 태생 한인 수가 2010년 7만242명에서 2022년 7만512명으로 270명 소폭 증가했지만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의 한국 출생자수는 4만3,084명에서 4만3,886명으로 802명 증가했다.

특히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총 인구 대비 한국 출생자 비율이 미 전체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버겐카운티 전체 인구 가운데 한국 태생 한인 비율은 4.6%로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2.73%), 몬타나주 프레리카운티(2.66%),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2.61%) 등보다 앞선 미국 내 카운티 중에서 가장 높다.

미 전국에서 전체인구 중 한국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와이(1.07%), 캘리포니아(0.8%), 뉴저지(0.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0.41%로 8번째였다.

미국내 전체 한국 출생자수는 2010년 108만5,151명에서 2022년 103만4,299명으로 5만852명 감소했다. 또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한국 출생자 비율은 0.31%다.

한국 출생자 가운데 60.5%가 2000년 이전에 미국으로 왔다. 2000~2009년 사이 미국에 입국한 한국 출생자는 21.3%, 2010년 이후는 18.3%로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는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센서스 보고서는 2008~2012년 아메리칸커뮤니티 서베이(ACS)와 2018~2022년 ACS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서한서 기자)

JFK공항, '휴대용 통역장비' 시범 운영



연방교통안전청(TSA)이 JFK공항 보안검색대에서 한국어 등이 포함된 휴대용 통역 장비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TSA에 따르면 JFK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비행기 탑승객과 시각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83개 언어 지원이 가능한 휴대용 통역

장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대에서 추가적으로 수하물 및 소지품 물품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안검색대 직원이 통역 장비를 사용해 해당 탑승객이 선택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존 에식 JFK공항 TSA 보안 담당 디렉터는 "휴대용 통역 장비는 영어소통 문제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검색 지연사태 및 갈등 등을 방지하고 보안검색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TSA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각 언어별 개선 사항에 대한 사례를 접수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In Chicago

윌리스 타워-스카이덱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시카고메트로폴리탄 지역을 한 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있다. 고층빌딩으로 가면 창밖으로 시내 전망을 볼 수 있지만 윌리스(구 시어즈)타워는 좀 특별하다. 주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예 건물 밖으로 돌출되게 만든 유리 박스(Glass boxes)가 있다.

타워의 벽면에서 4피트가 창문 밖

으로 돌출된 형태다. 1,353피트에 이르는 건물의 외부에서 시카고 시내를 내려다 보게 됨으로써 다운타운 광경을 조망하는 자체가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한다. 존행콕 빌딩에서 시내를 구경하던 스카이라운지 식당이 폐쇄됨으로써 이곳이야말로 시카고지역 사방의 전경을 스릴 있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취재팀〉

 In Hawaii

하와이 장바구니 물가, 전국 평균보다 80% 높아

하와이 주민들이 지불하는 생필품 가격이 미 전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주 내에서도 지역 별로 장바구니 물가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료품의 경우 칼리히 지역과 오아후 동부의 아이나 하나 지역의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나 하나 지역이 칼리히 지역보다 6~10% 정도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달갈의 경우, 칼리히 지역에서 11.79달러, 아이나 하나 지역에서는 12.29달러로 나타났다.

맥도널드 메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2명의 어른과 2명의 어린이가 음식을 주문을 할 때, 딜링햄에서는 29.96달러, 아이나 하나 지역에서는 33.16달러, 와이아나에 지역에서는 38.96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 차별에 대해 하와이 식당 협회 쉐릴 마츠오카 회장은 각

지역별 임대료 차등을 비롯 비즈니스 운영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역 별 가격 차에 일부 주민들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곳을 찾아 쇼핑하기 위해 먼 거리 운전도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의 윌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재 미국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생필품 가격은 5년 전보다 4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n Seattle

시애틀도서관 금서 대항에 한 몫... 청소년들이 원하는 종이책 대출 힘들자 전자책 다운카드 도입

정부당국이 '금서' 대상으로 꼽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된 전국의 청소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공립도서관(SPL)이 시행하는 '금서해제' 카드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

스가 보도했다. SPL은 금서대상에 오른 책들을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디지털) 형식으로 대출해주는 웹사이트 카드에 전국에서 지금까지 8,000여명의 청소년이 등록했다며 이들의 나이는 13~26세, 대

출해간 전자책은 총 13만7,000여권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서해제(Books Unbanned)' 프로그램은 뉴욕 브루클린 도서관이 2022년 창설했고 SPL은 지난해 동참했다. SPL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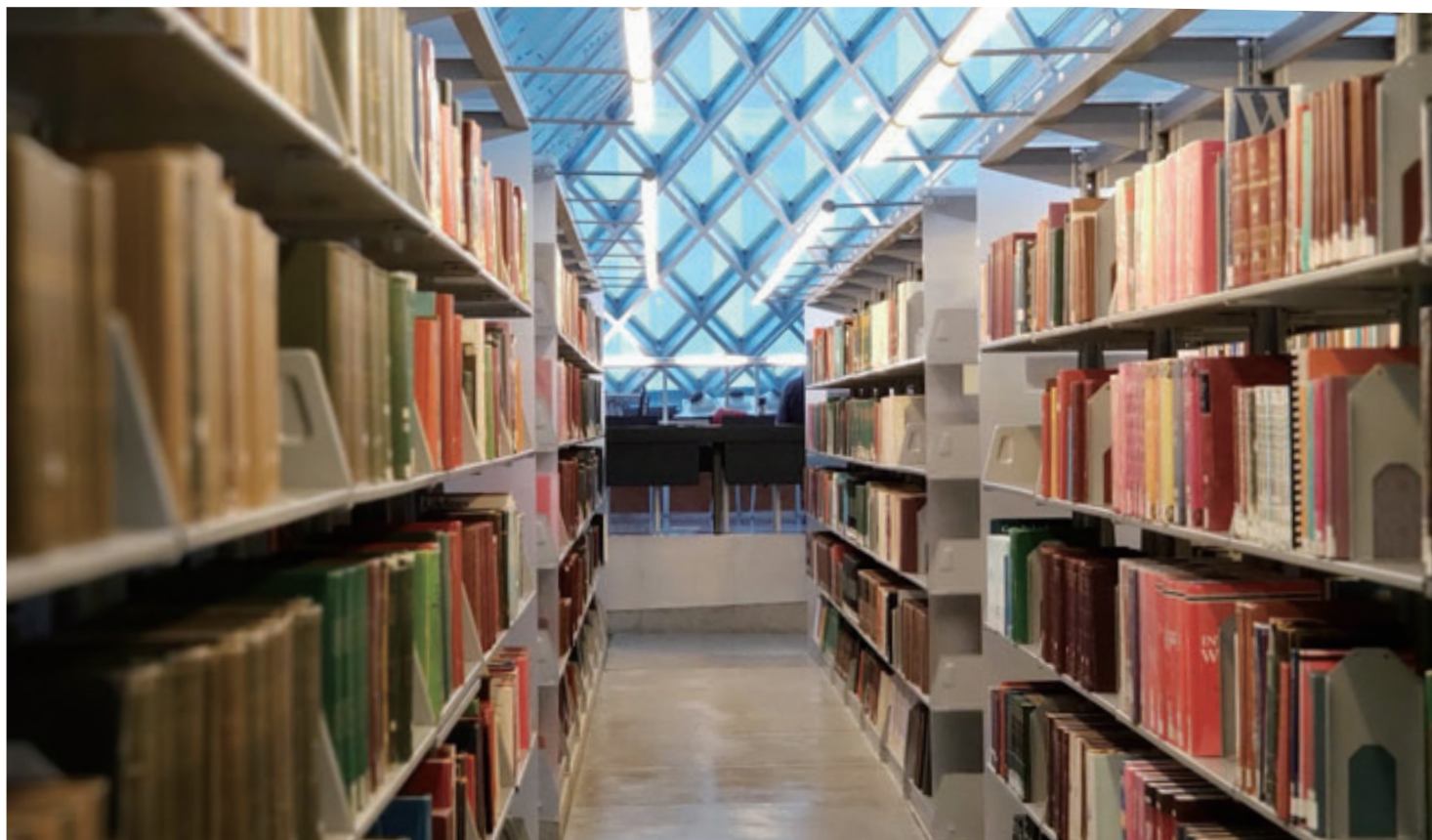
금지한 책만이 금서가 아니며 접할 수 없거나 읽으면 피해가 우려되는 책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금서 지목의 단골대상들은 LGBTQ+(성소수자), 유색인종, 생식기관, 인종 및 사회정의 등에 관한 책들이며 이들 책을 읽을 수 없는 성소수계나 유색인종 청소년들은 고립감과 차별의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금서해제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검열대상에 오른 책들은 전국 공립도서관에서 92%, 학교 도서관에서 11%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작년에 4,200여 책이 검열대상에 올라 2022년보다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SPL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금서로 지목된 책을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남들의 눈이 무서워 그럴 수 없다며 이들이 전화기나 다른 전자기기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으면 사서들과 대면하지 않아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톰 페이 SPL 관장은 금서해제 프로그램에 더 많은 공립도서관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정보 추구 권리를 억제하는 정책에 항거해야 한다고 당국의 도서검열에 대항하는 길은 금서로 지목할 책보다 더 많은 책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n Washington D.C.

시니어 4명중 1명, 62세부터 소셜 연금 받는다

언제부터 소셜연금을 받는가는 은퇴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미국 시니어 4명중 1명은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세가 연금을 받는 두 번째 인기 있는 연령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22.9%, 여성의 경우에는 24.5%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62세에 연금을 신청한다.

사회보장국은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데 62세에 신청하는 것을 조기 신청, 66세 신청을 만기 신청, 70세에 신청하는 것을 지연 신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은 대략 8% 정도 늘어난다. 그런 이유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기나 지연 신청을 하게 된다.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만기 은퇴연령은 67세이다.

올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연령은 1962년생이다. 이들의 경우 조기 은퇴를 하면 만기은퇴때보다 30% 정도 적게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연령 때 2,000달러를 받는 사람은 조기은퇴를 할 경우 1,400달러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보

통 10년간 일하면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2세에 은퇴한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소셜 연금은 1,277달러였다. 67세 만기 은퇴한 미국인들의 평균 소셜연금은 1,844.83달러였다.

그럼 누가 조기 신청을 할까. 첫 번째 그룹은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소셜연금은 단지 은퇴소득을 보충하는데 불과하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 연금이 있거나 은퇴를 위해 IRA(개인 은퇴계좌)나 401(K) 계좌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경우다.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그룹은 은퇴를 위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경우다. 이들의 경우에는 소셜연금이 자신이 지금 버는 수입에 더해지는 경우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두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셜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 2,320달러가 되면 소셜연금이 매 2달



러마다 1달러가 공제되고 5만9,520달러 이상이 되면 매 3달러마다 1달러가 공제된다. 공제된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는 다시 돌려주지만 돈을 벌면 당장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 그룹은 만성 질병으로 인해 오래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장애연금을 신청하기에는 건강하지만 75세 중반까지 살기

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70세 중반까지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62세에 소셜연금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시 재정계획을 할 때 건강보험 비용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직장보험이 끊기기 때문이다. 또 65세가 되지 않으면 메디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단지 옵션은 본인 스스로 건

강보험 비용을 충당하든지 아니면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비용이다.

(이창열 기자)

In San Francisco

‘믿음으로 하나되자’ 샌프란시스코 대회



CBMC 미주서부 총연합회(총회장 강승태)가 주최하는 샌프란시스코 대회는 ‘믿음으로 하나되자’ 라는 주제로 벌링게임 샌프란시스코 공항호텔(Embassy Suites)에서 4월25일 오후4시30분부터 27일 오전11시까지 2박3일간 개최된다.

대회 첫째날은 박성호 목사(산호

세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의 개회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주 강사인 최혁 목사(주안에 교회 담임)의 메시지가 있다. 뉴콰이어(지휘 아이린장) 합창단과 윤형주 장로의 찬양이 준비되며 남가주 연합회의 사역보고 시간도 주어진다.

둘째날은 장세호 한국 중앙회 수석부회장의 리더십 특강, 여호수아김(태진)목사의 일터사역 간증, 최혁 목사의 메시지가 오전에 있으며 오후에는 김이수목사, 안신기목사, 최승암목사 그리고 임봉대목사의 세션강의가 준비되며,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의 특강과 김영정 비올라 연주와 엔젤라 최 일터사역 간증, 강석희 조달청장의 일터사역간증이 있다. 윤형주 장로의 찬양과 간증 시간에 이어 북가주 연합회 사역보고 및 발표의 시간도 주어진다.

셋째날은 노병용장로의 새벽 말씀과 이선영 송실대 교수(중앙회 교육위원장)의 리더십특강과 유성수 중앙회 사무총장은 CBMC 교육특강, 이성열 협력국장 박성희 미서부 사무국장은 한국 중앙회와 미서부 총연을 각각 소개 한다. 최범철 중앙회장과 강

승태 대회장은 비전선포를 하며 최승암목사가 폐회예배를 인도한다. 계용식 손대운 준비위원장은 각각 개회 선언과 폐회 선언을 맡았다. 특별히 예배전 찬양인도는 한국에서 비전 트립으로 SF와 LA를 방문하는 8인조 Gifted 찬양팀이 홍성준 목사 인도로 진행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회는 지난 2023년 한국중앙회가 한국대회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에 힘입어 미주서부총연합회가 말씀속에서 CBMC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열리게 됐다.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라는 비전과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 를 사명으로 사역하고 있다.

본래 CBMC는 1930년 시카고에서 기독교실업인 7명의 기도로 시작되어 1951년에는 한국전쟁중 전후 복구및 교계지원을 목적으로 한국 CBMC가 조직되었다. 이후 1975년 LA에 북미주한인 CBMC가 결성되고 2019년 1월에는 남가주,북가주,서북부, 하와이지역

을 총괄하는 미주서부한인 CBMC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교파적 기독교 단체인 CBMC는 기독교인과 전문인을 상대로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성경적 경영을 통하여 일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대회는 미주서부총연합회(KCBMCUSA . 총회장 강승태, 직전회장 황선철)가 주최하며 북가주연합회(준비위원장 계용식 손대운, 사무국장 박성희)가 주관한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북가주연합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샌프란시스코 대회에 많은 등록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대회 등록비는 2박3일에 개인 200달러, 부부 350달러, 자녀 100달러이며 부득이한 경우 일일 등록도 가능하다. 숙박비는 별도이며 등록비에는 전체 강의와 점심과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문의: 408.623-5818.
Kcbmcusa2019@gmail.com

 In Atlanta

애난데일 화재 건물 방치한 한인 건물주 고소

한식당 침입 1만5천 달러
훔친 절도범 수배



페어팩스 카운티가 화재로 파손된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한 한인 건물주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역 뉴스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달 2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했다. 고소장은 DCC(Department of Code Compliance)의 가브리엘 자카 씨와 조닝(Zoning) 부서의 레즐리 존슨 씨가 현재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한인 건물주인 한기조 씨와 한애영 씨를 원고로 해서 접수시켰다.

카운티는 판사에게 한 씨 부부가 30일 이내에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수리하고 교체할 것을 명령하는 의무적 가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애난데일에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3월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본촌 및

토속집 식당, 한미 우체국 및 JJ 헤어 살롱 건물이 파손되었다.

고발장은 한 씨 부부가 버지니아 재산 유지 보수 규정과 페어팩스 카운티 조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붕 및 플래싱에 대해 “단단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비가 유입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발부된 소환장에는 “법원은 21일 내에 건물주에 대한 명령, 판결 또는 판결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적절한 법적 양식으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청취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9월에 코드 준수 관련 조사관인 조앤 마과이어 씨는 건물주에

게 30일 내에 부동산 청소를 지시하는 위반 통지를 수차례 인증된 우편으로 명시했다. 또 이런 요구를 무시하면 법적 조치 및 하루 최대 4,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물주인 한 씨 부부에게는 14일 내에 항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반 통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증된 편지는 ‘전달불가능’으로 표시되어 카운티로 반환되었다.

지난달 27일 법원 서기는 소송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귀넷카운티 경찰국은 지역 식당에서 현금 1만5,000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번 절도 사건이 3월 12일 자정부터 오전 1시 사이 돌루스의 머천트 웨이(Merchants Way) 2000 블록에 위치한 황소고짚(Hwangso Gozip) 레스토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 매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약 1만 5,000달러

의 현금을 훔친 뒤 귀넷 플레이스 물 을 향해 도보로 도주했다.

보안 영상에서 촬영한 귀넷 경찰이 공유한 사진에는 짙은 두꺼운 재킷, 검은색 해골 모자, 검은색 바지, 황갈색 부츠를 입고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나와 있다. 그 남자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유할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770-513-5300번으로 GCPD 형사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



 In Florida

MS 이어 애플도 간다...새 테크허브로 뜬 플로리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빅테크부터 스타트업, 금융 업체들까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온화한 기후에다 기업과 고소득자에 우호적인 세제 환경이 겹치면

서 플로리다는 '새로운 테크허브' 차세대 월가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의 부촌인 코럴게이블스 지역에서 4181㎡ 규모의 오피스

피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애플은 남미를 대상으로 한 광고 사업을 위해 플로리다 지역에 소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기존 플로리다 지역의 입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마이애미 지역에서 대규모 매장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에 앞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플로리다에 새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미 마이애미에 4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이 지역에 4650㎡ 규모의 신규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2021년에 마이애미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남미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도 자리 잡고 있다. 스타트업계놈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애미는 지난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상위 30개 도시 중 23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10계단이나 뛰어올랐다. 보고서는 마

이애미를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타트업 허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마이애미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도시 중 하나”라며 “미국의 새로운 테크허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텍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플로리다주의 법인세는 5.5%로, 캘리포니아(8.84%), 뉴욕(7.25%)보다 저렴하다. 특히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고급 인력과 부호들이 몰려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고급 인력들이 플로리다로 대거 유입됐던 것도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악시오스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다로 이주한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IT) 분야 인력은 2020년 15% 증가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30%나 늘었다. 이 밖에 중남미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입지와 따뜻한 기후, 상

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도 고급 인력들과 기업들이 몰려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융 업체들도 플로리다에 속속 등지를 틀고 있다.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켈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2022년 본사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억 달러 규모의 해안가 부지를 구매한 후 현재 고급 호텔 등이 포함되는 본사 사옥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역시 2021년 마이애미에 사무실을 열었다. 부동산 개발 업체 슈보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슈보는 “막대한 자금이 마이애미로 몰려들고 있다”며 “새로운 월스트리트가 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미니 월스트리트’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플로리다로 가는 기업들

-  **애플** 대형 매장 개점 예정
-  **아마존** 기존 사무소 확대 예정
-  **MS** 남미 공략 신규 거점 구축
-  **시타델** 시카고서 본사 이전
-  **블랙스톤** 신규 사무실 개설

자료:외신 종합

2024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2024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김멜라, 공현진, 김기태, 김남숙, 김지연, 성해나, 전지영(지은이) | 문학동네

2010년 제정된 이래 해를 거듭하며 독자들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작가상이 어느덧 15회를 맞았다. 저만의 문제의식과 치열한 언어로 문학의 지평을 넓혀온 데뷔 십년 이하 작가들의 눈부신 발돋움을 조명하고자 마련된 젊은작가상은 지난해까지 모두 62명에 이르는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며 한국문학에 생기를 더했다. 올해 젊은작가상에 이름을 올린 수상작가는 김멜라, 공현진, 김기태, 김남숙, 김지연, 성해나, 전지영이다. 이상의 수상자로는 처음 이름을 올린 공현진, 김기태, 김남숙, 성해나, 전지영 다섯 명의 등장이 반갑고, 작품세계를 경신하며 세번째로 젊은작가상을 수상하는 김지연의 성취가 뜻깊다. 무엇보다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젊은작가상을 수상하다가 올해 마침내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멜라의 쾌거가 값지다. 우리 삶의 한 장면을 흥미진진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이 일곱 편의 소설은 독자에게 밀도 높은 공감을 안길 뿐 아니라 독서 그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새봄의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김멜라의 「이음 이음」은 성적 욕망을 해소해주는 기계가 발명된 시대를 배경으로, 타인과의 교류 없이도 편리하게 욕구를 해소하게 되었음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인물의 감정선을 좇는다. 반려 가족을 상실한 주인공 ‘나’가 사라진 존재와의 신체 접촉을 깊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냄으로써, 섹슈얼리티는 다채로운 정서적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펼친다. “여전히 김멜라의 고안과 발명들로 반짝이면서도 그간의 어느 작품보다 그리움과 상실의 정서들로 감정과 감각을 흔들어놓는 소설” (심사평, 소설가 최은미)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김멜라 작가는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적어도 두 번』 『제 꿈 꾸세요』, 장편소설 『없는 층의 하이센스』, 산문집 『멜라지는 마음』이 있다. 문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2021년, 2022년, 2023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공현진의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는 수영 센터의 강습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는 주인공 ‘주호’와 ‘희주’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만의 속도로 호흡하며 곳곳하게 연대해나가는 “사랑스럽” 고도 “진중함(심사평, 문학평론가 김건형) 작품으로, 망해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한다. 김기태의 「보편 교양」은 고전읽기 수업을 맡은 국어 교사 ‘곽’이 어느 날 학부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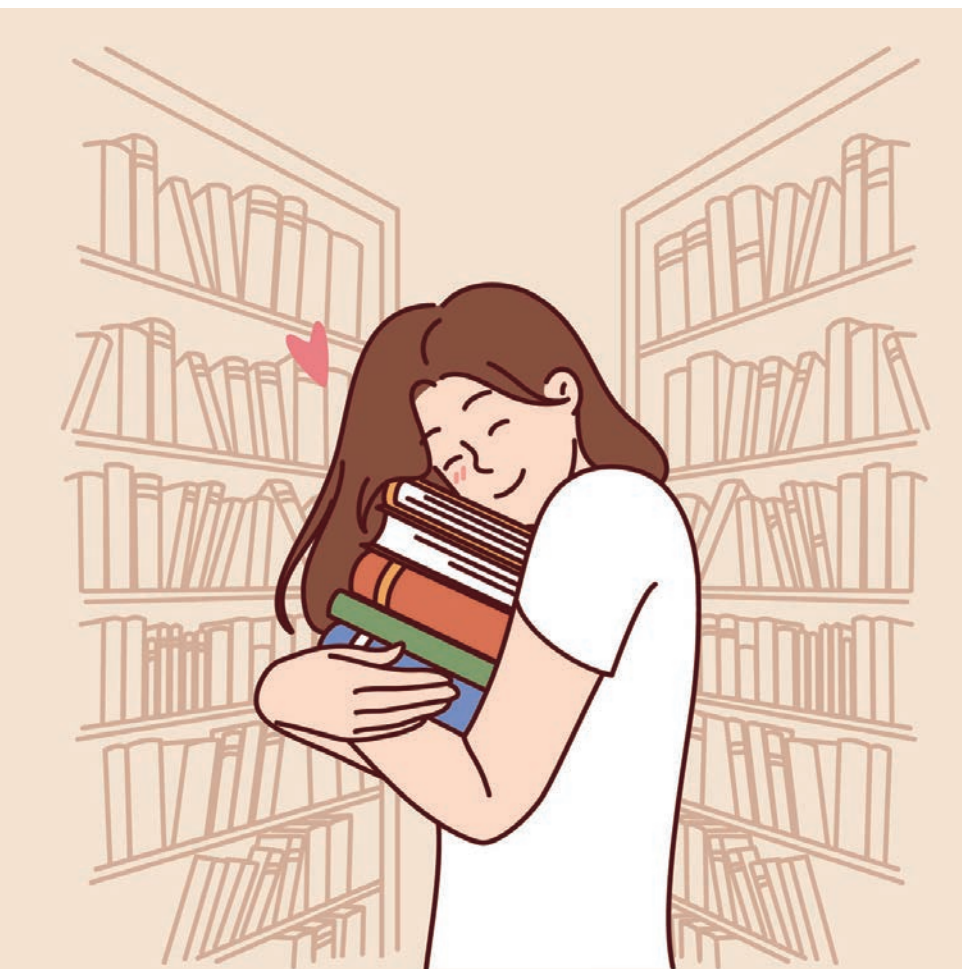


서 민원을 받은 후 평온했던 그의 내면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포착한 문제작으로, 정교하고 촘촘한 문장에 녹아 있는 지식인 화자의 위선이 크나큰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킨다. 김남숙의 「파주」는 화자 ‘나’의 남자친구 ‘정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군대 후임 ‘현철’의 복수 서사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인 ‘나’가 겪어온 자기혐오의 문제를 겹쳐놓으면서 폭력의 구조를 질문케 하고 인간관계의 역학을 확장시키는 수작이다. 김지연의 「반려빛」은 전 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긴 일억 육천의 빚을 마치 가족인 양 ‘반려빛’으로 여기는 ‘정현’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혜타산과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과 그 구조의 약자인 청년 세대의 고통을 통렬하게 펼쳐 보인다. 성해나의 「혼모노」는 몸주로 모시고 있던 장수 할멈 신이 출연히 떠나 이른바 ‘신빨’이 다해버린 삼십년 차 박수무당 ‘문수’와 그의 앞집으로 들어온 ‘신애기’의 기 싸움이 인상적인 활극으로, 무속 문화라는 독특한 세계를 실감나게 그려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앞에 선 인간의 믿음과 불신, 진정성을 질문하는 강렬한 소설이다. 전지영의 「언캐니 벨리」는 야간 택시 운전기사 ‘나’가 과거에 태웠던 한 손님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벌어지는 고딕풍 스릴러이다. 사건의 무대를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폐쇄적인 마을로 설정함으로써 부자와 빈자, 미와 추, 정상성과 비정상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불안과 낙약함을 형상화한 야심 넘치는 이야기이다. “젊은작가상은 작품활동을 시작한지 십년 이상 지 않은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계간 『문학동네』의 계간평 코너를 맡은 박서양, 이소, 임정균, 전승민 평론가가 2023년에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주었고, 이 작업을 바탕으로 성현아, 전청림, 최다영 평론가가 각자의 추천작을 더하고 함께 신고심을 진행해 총 스무 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본심 심사위원으로는 김건형, 황

종연 평론가와 김민숙, 배명훈, 최은미 소설가가 위촉되어 2024년 1월 26일에 본심 심사가 열렸다. 김멜라의 「이음 이음」은 성에 대한 대담한 상상력과 ‘반려’와 ‘사랑’에 대한 천착이 두루 지지를 받으며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김지연의 「반려빛」과 공현진의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는 청년 세대의 현실과 그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낸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김기태의 「보편 교양」과 성해나의 「혼모노」는 위선과 위악을 세밀하게 포착하면서도 재치 있는 문장으로 주목받았다. 김남숙의 「파주」와 전지영의 「언캐니 벨리」는 인간의 폭력성, 불안이라는 주제를 인물들의 관계와 공간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이렇게 일곱 명의 수상자를 꼽고 나서 보니, 젊은작가상을 처음 수상하는 신인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또한 반기웠다. 이들의 다음 작품이 더욱 기대된다. 재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활약을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도 독자 여러분에게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선물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_ 심사 경위」에서 참고로 젊은작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7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수상작품집의 인세(10%)가 상금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인세를 수상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수상작품집은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 출간 후 1년 동안은 특별보급가로 판매한다.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민심은 언제나 옳다?

지난 4월 10일 (한국시간) 한국에서 열린 총선에 참패한 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드린다. 국민 뜻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연 민심은 언제나 옳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민을 이끌어 선진 민주국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 필자의 사무실에 오는 한인 고용주들은 당신들의 주장에 필자가 100% 찬성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자가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쾌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 돈이 없으니 우리 쪽에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시거나 원고가 불법체류자이니 그 사실을 법원에 고발하자고 주장하신다. 아니면 종업원이 그 전에 비슷한 소송을 여러번 제기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자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고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손

님은 왕이고 늘 옳고 변호사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만 고객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조언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소송한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해서 혼내주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맞소송

이기 때문에 필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어렵게 딴 변호사 라이선스를 고객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 있지 않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을 모르시는 고객들이 너무 억울해

언트들에게 존엄하게 (?)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을 펼쳐서 소송이나 재판에서 본인들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즉,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돌아킬 수 없는 단계인데 그때 가서 야지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면 무엇 하라?

또한 본인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일단 소송을 당하면 사방에서 오지랖 넓게 조언을 해주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들의 조언을 필자에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치 조리가 안되는 재료를 주방장에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달라는 손님들과 같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소송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부정확한 단편적인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가 아닌 분들의 의견은 일단 책임질 수 없기에 위험하다.

실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케이스에는 함부로 조언을 해주기 아주 불편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자기 변호사들에게 맡겼으면 믿고 따라가 주기 바란다. 얼마나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한인 고용주들이 이렇게 주장할 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변호사들이 무조건 맞소송을 파일했다가 그 맞소송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언제나 옳지 않다.

또한 고객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한 상대방 변호사의 비리를 변호사 협회에 고발하자고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의 범죄를 경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고발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결론은 “손님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와 “미국 법은 왜 이래요”로 종결된다.

특히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 실제로 한국으로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도 봤다.

이렇게 노동법 민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악무가내로 자기들이 굳게 믿고 있는 주장을 할 경우 변호사는 매우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라고 클라이



Haewon Kim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김해원 변호사 무료 배포
- 최신 임금·상해·병가 정보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Tel. (213)387-1386 / Mobile (213)321-1609 / Fax (213)387-1836

e-mail haewonkimlaw@gmail.com / kimmlaw.blogspot.com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문상열 전문기자

2024년 대학농구 3월의 광란 최고의 스타는 케이틀린 클락

2024년 '3월의 광란(March madness)' NCAA 토너먼트는 막을 내렸다. 남자 대학농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코네티컷(유콘)의 2연패로 끝났다. 2006, 2007년 2연패를 차지한 플로리다 대학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댄 헐리 감독이 이끈 유콘은 듀크를 제치고 통산 6차례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 역대 공동 3위에 올랐다. 1939년부터 시작된 NCAA 토너먼트 최다 우승교는 서부의 UCLA로 11회, 켄터키 8회, 노스 캐롤라이나, 유콘이 나란히 6회씩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농구 명문교들이다. 켄터키 대학은 우승 감독 베테랑 존 칼리파리(65)가 아칸소로 이적했다. BYU(Brigham Young University) 마크 포프 신임 감독이 명문 대학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여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우승을 차지했다. NCAA 토너먼트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늦은 1982년에 출범했다. 돈 스탈리 여성 감독이 이끄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신홍 농구 명문이다. 스탈리 감독이 부임한 뒤 2017년, 2022, 2024년 등 8년 동안 3차례 정상에 차지했다. 여자 대학농구는 유콘이 최강이다. 통산 11차례 우승을 일궈냈다. 올해도 유콘은 파이널포에 진출해 아이오와에 아깝게 졌다.

올해 남녀 NCAA 토너먼트의 승자는 아이오와 대학의 시니어 케이틀린 클락(22)이다. 클락의 아이오와는 결승전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87-75로 패해 우승에 실패했다. 2년 연속 준우승이다.

그동안 남녀 대학농구 3월의 광란은 규모와 시청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월의 광란은 남자 대학농구로 상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여자 대학농구는 시청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남자를 능가했다. 처음있는 일이다. 남자 토너먼트(NCAA 디비전 I)의 중계 권리는 연간 11억 달러에 이른다.

퍼듀-유콘의 남자 결승전은 TBS와 TNT로 전국 중계됐다. 1482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결승전은 ABC와 ESPN의 중계로 1870만 명이 시청했다. 피크 타임 때는 24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다. 대학농구 뿐 아니라 여자 스포츠가 이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획기적이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월드컵 여자 축구도 역대 최고(피크)가 2019년 결승전이 2000만 명이였다. 여자 축구는 미국 여성 스포츠의 대명사격이다.

여자 대학농구의 시청률 고공비행을 이끈 주인공은 단연 클락이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남녀 통틀어 NCAA 디비전 I 최다 득점을 작성했다. 통산 3951점으로 1970년 LSU의 '피스틀' 피트 마라비치 기록(3667포인트)을 뛰어 넘었다. 6피트의 클락은 WNBA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지명됐다. 여성판 스테판 커리

(36)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데이비스 대학을 나온 커리는 2009년 NBA 드래프트 9번으로 지명됐다. 클락도 마크맨이 없으면 하프라인에서 3점슛을 터뜨릴 정도로 감각이 뛰어나다. 커리는 NBA 3점슛을 바꾼 '게임 체인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스탈리 감독은 경기 후 클락에게 "너가 있었기에 여자 대학농구뿐 아니라 여성 스포츠가 큰 주목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후배 선수의 공로와 앞날을 축하했다. 여성 스포츠는 남자에 비해서 슈퍼스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번 대학농구에서는 슈퍼스타 클락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백인 여성에 뛰어난 기량을 갖춘 점이 크게 어필했다.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3월 래퍼 아이스 큐브는 남녀 성대결인 3인 농구 BIG3 매치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약속했다. NCAA 토너먼트에서 패한 뒤 NBC의 'Saturday Night Live'에도 출연했다. 스포츠인의 'Saturday Night Live'는 슈퍼스타임을 인정받는 무대나 다름없다. WNBA는 클락의 가세로 더 주목받은 리그가 됐다. 아마추어의 인기가 프로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현 NBA 인기가 차츰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1979년 NCAA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미시건 스테이트의 어빈 매직 존슨과 인디애나 스테이트 래리 버드의 흑백 대결에서 비롯됐다. 둘은 결



승전을 마치고 나란히 존슨은 서부 명문 LA 레이커스로, 버드는 동부의 보스턴 셀틱스에 입단해 NBA를 최고 종목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농구 최강국이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해 노메달이 유일하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7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구상에서 여자 대학농구 토너먼트를 68강 체제로 구성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이렇게 많은 팀과 수준이 비슷한 팀을 만들 수가 없다.

미국의 여성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세

계 최고 수준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타이틀 IX 때문이다. 1972년 법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과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는 성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게 못을 박았다. 대학에서 남학생에게 스포츠 장학금을 주면 여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미국 대학스포츠를 총 관장하는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산하에 남자 종목은 19개, 여자 종목은 22개에 이른다. 오히려 여성 종목이 더 많다.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IX에 의해 여성 스포츠가 발달되고 케이틀린 클락같은 슈퍼스타가 출현한 것이다.

moonsytexas@hotmail.com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파우치형(33ml)_1회분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간 건강엔
동강청정
다슬기 기름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다슬기 효능

간기능 회복
위장, 빈혈
관절염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송영 특크 설렁탕

- 표고 우거지 해장국 • 통큰 설렁탕 • 섞어 설렁탕 • 해장국
- 북어국 • 갈비탕 • 육계장 • 도가니탕 • 쇠고기 수육

송영 신메뉴

특 해장국
(양, 순대)

화요일
1+1 스페셜
TOGO ONLY

[갈비탕 or 도가니탕 주문시
해장국 FREE]

\$19.35
+ Tax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다슬기 된장 판매합니다.

설렁탕 한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특 해장국 (순대)



특 해장국 (양)



213.277.1339



**딜리버리
합니다.**

주 7일 오픈합니다
7:00AM ~ 10:00PM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 [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옛날짜장의 구수한 맛~



‘복해루’



주문 즉시 춘장을 15분 이상 오래 기름에 볶아야
담백하고 짜지 않아서 조미료가 적게 가미되어,
옛날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옛날 짜장 구수한 맛의 진수~



황제짬뽕
\$18.99



칸풍새우
\$19.95



양장피
\$29.95



팔보채
\$34.95



청파소고기
\$26.95



유산슬
\$34.95

45년 경력
중화요리 최강달인 KEN LIU

복해루LA

Tel. (323)730-1890
3636 W Olympic Bl.
(올림픽+4th Ave. 한미은행 건너편)

음방 1위해 앙코르 무대 하고파



그룹 키소브라이프(KISS OF LIFE)가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글 1집 '미다스 터치(Midas Touch)'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기만해도 시원해!



새봄을 맞아 가동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앞 아쿠아아트 육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맥 팝업에 강림한 수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서 진행된 한맥 엑스트라 크림 생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융자전문

융자외길 33년, **브라이언** 주의
경험과 완벽한 일 처리, 꼼꼼한 마무리,
그리고 **헤일리 홍**에게 맡겨주세요

● 주택 2차 융자

- 현재 저렴한 융자 유지하며 집 가격의 75%까지 융자 가능
- 세금 보고 필요 없음 (직장인, 자영업)
- 이자 8% 후반 30년 고정

● EASY DOC

- 25-30 % DOWN 7.5%부터 시작
- 재직증명만으로 융자 가능
- 12Mons Bank Statements 만으로 융자 가능

● Merchant Credit Card Loan

- 크레딧 카드 매출이 매달 \$50,000 이상이면 가능
- Credit Score 580점 이상/
- 2-3일 만에 Funding 가능
- NO FEE

○ 30년 고정 6.25% 부터

- ✓ 최저이자 서비스
- ✓ 신속 친절 융자
- ✓ NO Cost 융자
- ✓ 개인별 맞춤 융자



브라이언 주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BrianJoo@aol.com

Brian Joo
NMLS #335934

213.219.9988

한국일보경제면 전문가칼럼게재중



헤일리 홍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Hailey Hong
NMLS #2389535

714.253.2937

leewayfunding4@gmail.com

Leeway
FUNDING

3600 Wilshire Bl. Ste 410, LA, CA 90010

돈이 많아도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운명, 〈모범가족〉이 주는 교훈



한 대학교의 강사이자 평범한 가 장인 주인공 동하는 교수임용에 실패하게 되고, 교수임용을 위해 촌지로 끌어다 쓴 사체에 독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은 이혼하자고 통보를 하고,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그 사람의 돈가방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돈가방을 보고 당연히 동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순간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돈가방을 집에 가져와 숨기고, 그 주인공인 사망한 사람을 아주 대범하게 집 뒷마당에 묻어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돈의 행방을 쫓는 마약상들과, 이 마약상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잠복한 경찰의 죽음을 해결하는 경찰들, 그리고 돈가방을 취한 정체가 드러나 마약상들로부터 가족들의 위협을 받으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 동하 이들의 쫓고

쫓기는 범죄 가족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2022년 8월 공개된 넷플릭스 총 10부작 〈모범가족〉입니다. 배우 정우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 대학 강사 박동하를 연기하고, 마약상에 배우 박희순, 그리고 동하의 아내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윤진서, 그리고 새로운 얼굴 박지연이 형사 역을, 정우의 아버지 역할은 배우 오광록이 연기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들이 화려한 대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배우들이 아닌 배우들이 연기를 펼치는 것을 보니 좋기도 했고, 특히 배우 정우가 틀에 박히지 않은 소시민적 탐욕 때문에 고뇌하는 연기를 펼쳐 보이고, 윤진서와의 의외의 연기 케미스트리도 좋았습니다. 반면 스토리가 10부까지 진행되면서 중반 길게 늘어지고 개연성 면에서 죽고 죽이는, 불필요한 배신이 반복되고 틀에 박힌 이야기도 한계도 보이지만 B급 무비 같은 거칠면서 투

박한 감성에, 카메라 촬영에 걸러나 위기의 캐릭터를 그린 구도 등 많은 실험과 공을 들인 연출은 높이 살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모범가족을 통해 얻어야 할 돈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무엇보다 내가 성취한 재산이 아닌 경우, 횡재를 통해 얻은 재화나 재물의 경우, 내 결정권이 아닌 타인의 결정권에 의해 끌려 다니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굴러서 결국 나의 자산으로 내가 컨트롤한 자산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떻게 불릴 것인지 등에 권한은 일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 뜻은 돈에는 계획이라는 나침반이 없었을 때, 불어난 돈, 혹은 얻어지게 된 돈에 대해서 정작 그렇게 원했던 돈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주인공 동하는 아들의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고, 아내와의 이혼의 위기도 막고, 교수 임용의 닦힌 사안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돈을 얻게 되었음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돈에 대해서 알아서 활용해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에 의해 조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현금으로 생긴 돈, 과연 이 돈은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하는 슈트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많은 현금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지요. 우리 미국에서도 현금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작 돈을 쓰는데, 아니 그 이상 자산을 불리는데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현금을 그냥 쓰는 것 뿐 실제로 자산을 굴리는데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이유야 어떻든, 상황이야 어떻든, 결국 가족의 행복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이 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우가 돈에 쪼들리지 않았다면 교통법규 한번 어겨본 적 없는 모범 시민이자 양식 있는 소시민 가장인 정우가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돈가방을 취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정우 가족은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지요. 이런 현실적인 재정, 돈의 해결과 대책 없이 과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모범가족을 통해 우리가 얻는 메시지입니다. 〈모범가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불법은 불법을 부릅니다. 불법은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야 말로 어쩌면 가장 정직하게 오히려 인간보다 더 정직하게 스스로의 성격을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 우리 일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머니토크 시네마 토크는 넷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이었습니다.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문선영 재정 전문가

-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 영화평론가A 출신의 11년 차 재정전문가.
- 넘버만이 아닌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돈의 세계라는 분야의 전문가.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은퇴연금/ 리빙베네핏/ 401K 롤오버/ 학자금/ 절세플랜/ 상속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1650)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여러분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미국에 살면서 내 돈 모으고, 굴리고, 불리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비교책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고 유익하게 물어드립니다. #머니토크 #영화속 돈 이야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정 #손님들 실제 케이스 적용까지 살려드립니다.

다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한의학의 추나 요법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침과 한약, 부항은 많이 듣고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많이 아시는데, 추나요법은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나요법이라는 치료를 받아 보시면 마사지와 비슷하고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의 교정치료와 비슷하게 기술을 하는 편입니다.

추나요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치료이고,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인체를 연결시켜주고 관절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일정한 위치를 고수하고 인체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해주지만, 갑작스런 충격이나 부상 또는 오랜 시간의 누적된 피로로 인체가 하약해졌을 때, 장기간 작은 부상들이 축적되었을 때 등등의 이유로 근육의 정상적인 생리상태가 파괴되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추나요법을 사용합니다.

'추나'는 밀고 붙잡다는 뜻입니다. 추나안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밀고 붙잡고, 누르고 문질러서 근육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손의 촉진을 통해서 몸의 근육과 골격의 불균형이 심해진 곳을 찾고, 그곳을 밀고 잡아당기고 누르고 비벼서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으로 근육손상을 치료하면 얻게 되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며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두 번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락을 소통시켜서 근육의 경련을 없애줍니다.

셋째, 근골격의 부정렬을 교정하고 근육의 유착을 풀어줍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손상된 부위에 조직액이 새어나오거나 미세혈관이 좁아져서 몸의 관절과 근육에 어혈이 쌓이게 만들고, 어혈이 기와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해서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만들고 근육과 관절의

연부조직들을 들러붙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컨트롤 하면서 연부조직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현대 중의의학에서는 신체의 근육통증과 관절의 통증들을 기와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의 관건은 기와 혈액을 소통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가 소통되고, 혈액과 진액이 잘 순환되면 통증,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 몸의 중심은 척추이고, 그 척추에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장기와 신경이 몰려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근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모든 동작과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서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힘의 발원지입니다. 우리의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척추는 생명체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활동을 유연하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척추가 안정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자세로 서거나 걷기 어렵고, 더 나아가 누워 있기도 불편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클리닉에서는 척추의 치료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척추는 건강한 삶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국의 전통 치료 기술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허리와 척추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가 주기적으로 아파지거나 자고 일어나서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때 저희 클리닉으로 오셔서 추나요법과 침으로 통증을 다스리셔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의원은 우리 몸의 기초이고 근원이 되는 몸의 중심 척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척추의 건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고기연
원장

NHS 건강 정보 만병의 근원 비만척결: 비만 측정법

보다 젊고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이다. 본 칼럼은 뉴트리셔니스트 스티븐 조의 올바른 건강 영양 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 지표를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스티븐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셔니스트

비만으로 발생하는 체내 염증은 세포를 변이시켜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영향을 주고 노화에도 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 되었다. 심지어 비만은 신진대사의 균형을 파괴하고 신경세포를 마비시켜 식욕이 억제되는 질병 수준의 문제로 이어진다. 아울러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비만을 측정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젊고 건강한 몸을 위해 필요하다.

비만의 정도를 가늠하는 BMI (Body Mass Index) 측정법이 있다. 이 측정법은 CDC에서 채택하고 다양한 측정기구에서 비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MI 측정 방법은 본인의 체중 (파운드) 을 신장(인치)의 제곱으로 나눠서 703을 곱하여 나온 값이다. 체중이 170파운드 이고 신장이 6.5피트인 성인을 예들 들어 본다. 신장을 인치(Inch)로 환산하면 78inch이다. 신장 78inch를 제곱하면 6084가 되고 신장 170 lbs를 6084로 나눈 값에 703을 곱하면 19,643.3이라는 체지방(BMI)이 산출된다.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지방률(BMI) = 체중(lbs) / (신장(inch) x 신장(inch)) x 703

이렇게 환산된 수치를 기준으로 18.5에서 24.9까지가 20세 이상 성인의 정상 체지방 이고 24.9를 초과하면 비만 18.5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분리한다. 최근 시중에 나오는 체중계는 이러한 계산없이 바로 BMI를 측정 해 주는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있다.

이렇게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염증이 비만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립의학원에 등재된 논문에서 증명하고 있다. 체내에 염증이 생기면 CRP (C-reactive Protein)이라는 단백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측정하여 염증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지방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CRP가 더 측정되는 것으로 이는 염증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CRP가 증가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심리적인 작용에도 영향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때문에 BMI 측정값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비만인 경우 지방을 없애려는 단식이나 운동보다도 먼저 염증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으로 체내 염증을 줄이는 것만으로 비만에서 벗어나는 성공 사례가 많이 있다. 염증도가 낮아지면 제어 능력이 향상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의욕이 올라가고 운동을 했을 때 피로감이 덜하게 된다. 이런 염증을 낮춰 주는 천연 영양제는 많이 나와 있다. 이는 항산화작용을 돕는 제품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보다도 항생작용을 하는 제품이 좋다. 그 대표적인 성분이 에키네시아라는 들국화과의 식물이다. 복용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으로 자신의 염증 정도를 감안한 것이 바람직하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이제부터 온라인 뉴스사이트는

radioseoul1650.com

빠른 뉴스 업데이트! 한인사회 로컬뉴스, 미국뉴스

라디오서울 뉴스본부 10명의 기자들이

24시간 전담하여 뉴스를 실시간 업로딩!

라디오서울 생방송, 인기프로 다시 듣기

컴퓨터, 핸드폰에 무조건 즐겨찾기 저장!

지금 라디오서울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뉴스레터 구독이벤트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으세요

“여자는 위기에 약하다 길래 ‘시켜봤냐’ 따졌죠” ‘농구 여제’ 박찬숙 서대문구농구단 감독



정서를 낸 것은 자신이 감독이 되지 못했다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여성 스포츠계에도 스타들이 많은데 아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한국 여성 스포츠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후배들에게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박 감독은 “내가 제출한 진정서 덕분인지 인 권위에서 스포츠 구단에 ‘팀 내 코치를 비롯한 지도자는 여성을 1명 이상 둘 것’을 권고했다”며 “이후 여자 농구단을 비롯한 스포츠팀에서는 여성 지도자를 최소 1명은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계 여성 지도자 활성화에 힘썼던 그는 요즘 서대문구여자농구단 지도에 여념이 없다. 자신이 처음 감독을 맡은 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 스포츠의 활성화가 서대문구에서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선수들을 빨리 프로팀에 보내는 것이다. 박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프로팀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이들을 프로팀으로 가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서 “개인 기량은 물론 팀플레이에서도 훌륭한 우리 선수들을 프로 구단도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서대문구여자농구단은 14일 ‘2024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창단 1년 만이다. 지금의 기세를 앞세워 박 감독의 팀은 7-8월 ‘제79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와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매 대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를 응원해주는 서대문구 주민들과 여자 농구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정욱 기자〉

“제가 처음으로 여자 농구팀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우선 우리 팀 선수들의 프로팀 진출을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포츠계에서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박찬숙 서울 서대문구여자농구단 감독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여자 스포츠 스타 중 은퇴 후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구단에서는 아들에게 좀처럼 자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구 여제’ ‘여자 농구 레전드’ ‘농구

코트의 여왕’ 등 다양한 수식어를 보유한 박 감독은 지난해 3월 서대문구여자농구단 사령탑으로 취임했다. 서대문구여자농구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실업 농구팀으로 평소 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이 2023년 3월 창단해 박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 여자 농구를 대표했던 박 감독 정도면 그동안 여러 팀의 감독을 해봤을 것 같지만 서대문구여자농구단이 첫 감독직이다. 1997년 여자 프로 농구가 출범했을 때 언론에서는 그를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 줄곧 하마평

에 올렸지만 프로 구단들은 그를 외면했다.

박 감독은 “예전에도 감독에 도전해봤지만 장벽은 높았다”며 “프로 구단 감독을 뽑는다는 곳에 면접도 보곤 했는데 결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택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는 왜 감독이 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여성은 위기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그래서 ‘여자에게 감독을 시켜봤냐’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감독은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자 농구계에서 여성들이 감독 선임 과정 중 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 당시 그가 진



Journey at Pechanga, 제 17회 CM 프로암 대회 4월 9일 개최 - 톱 LPGA 선수 30명 참여



사진 <ProAm - Group photo>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캐릭터 미디어가 주관하는 제17회 프로암 골프 대회를 오는 4월 9일, 카지노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인 Journey at Pechanga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애슐리 라우, 로빈 최, 제니퍼 장, 주수빈, 쑤치아첸 등 경쟁 여성 골퍼들이 대거 참여한다.

애슐리 라우(Ashley Lau)는 2024년 3월 25일 기준 롤렉스 랭킹 234위로, 2024 호주 빅(Vic) 오픈에서 1위를 차지하며 혜성같이 등장했다. 2023년 데뷔한 이래 라우는 골프계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와일드호스 여자 골프 클래식 대회에서 두 번이나 10위 안에 들고 시즌 통틀어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그녀는 프로 골프씬에서 그 실력을 주목받고 있다.

로빈 최(Robyn Choi)는 2023 LPGA Q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2024 LPGA 시즌 참가권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웨벡스 플레이어 시리즈(The Webex Players Series South Australia)에서 우승하며 수상 기록을 또 한 줄 추가했다. 호주 출신의 로빈은 한결같은 경기 실력을 빼어난 이야기

할 수 없다.

엡슨(Epson) 투어에서 여섯번 톱10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 롤렉스 랭킹 284위다.

USC 재학 시절 올아메리칸(All-American)을 수상한 제니퍼 장(Jennifer Chang)은 현재 랭킹 325위로, 바로 지난 달 플로리다에서 열린 내추럴 채리티 클래식(Natural Charity Classic)에서 시즌 최고 성적인 8위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대학 3학년때 프로 골퍼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의 대학 수상 경력은 프로로서 그녀의 잠재력과 기량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주수빈은 2023년부터 LPGA 여정을 시작해, 자신의 실력을 일찌감치 입증하듯 샵라이트(ShopRite) LPGA 클래식 대회에서 시즌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다. 데뷔 첫 해에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61위라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보인 주수빈은 순식간에 모두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선수의 위치에 올랐다. 그녀의 롤렉스 순위는 현재 376위다.

쑤치아 첸(Ssu-Chia Cheng)은 8살에 골프를

시작해 지난 2월 열린 2024 폭스콘 T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라는 기념할 만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과 2014 난징 청소년 하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만 대표로 출전했고, 현재 롤렉스 랭킹 39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 많은 걸출한 LPGA 선수들이 대회에서 경쟁을 펼친다. 애비게일 아레발로(Abeigail Arevalo), 아멜리아 가비(Amelia Garvey), 에이미 리(Amy Lee), 아니카 보렐리(Annika Borrelli), 브리어나 도(Brianna Do), 가브리엘라 덴(Gabriella Then), 지지 스톨(Gigi Stoll), 그레타 볼커(Greta Voelker), 이일희, 제니 로젠버그(Jenny

티 스폰서들은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클럽을 스윙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스폰서들은

자신이 함께 경기를 할 LPGA 프로골퍼들이 누군지 대회 전날 밤 알게 된다. 대회는 선수 기자회견이 끝난 후 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홀 스크램블 토너먼트 형식인 이번 경기는, 대망의 CM 프로암 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대회는 경쟁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 득점을 파(par)로 지정하고 있다.

CM 프로암 골프 대회는 뛰어난 골프 선수들을 선보일 뿐 아니라 스포츠맨 정신과 동지애를 기린다. 아름다운 테메쿨라의 심장에서 펼쳐지



사진 <Tjeerd Brink - PRC General Manager>

Rosenberg), 질리언 홀리스(Jillian Hollis), 케일리인(Kaley In), 케런 정(Karen Chung), 루이스 리더스트롬(Louise Ridderström), 말리아 남(Malia Nam), 김민지, 모 마틴(Mo Martin), 올리비아 슈미트(Olivia Schmidt), 레베카 라-벤탐(Rebecca Lee-Bentham), 제니 콜먼(Jenny Coleman), 사바나 그레웰(Savannah Grewal), 셀레나 코스타빌(Selena Costabile), 시드니 마이클스(Sydney Michaels), 티샤 알린(Tisha Allyn), 비키 허스트(Vicky Hurst)가 그들이다. 30명의 프로 골퍼들은 난이도 높은 코스에서 자신의 실력과 스포츠 정신을 자랑하며 팬들과 파트너 모두를 감동시킬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 Journey at Pechanga 소개

Journey at Pechanga 챔피언십 골프 코스는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의 수 많은 고급 편의 시설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최고의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평가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럭셔리한 숙박과 함께 즐기는 골프는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거나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객실 예약을 하시려면, Pechanga.com을 방문하시거나 (877)711-2946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Jillian Hollis - LPGA>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연방 정부 허가 업체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원조 천종산삼 도매회사

뉴욕주 정식 허가 업체-Permit No.: 463, 464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610~~
\$500

호도 선물 이벤트
7그램 산삼공진단 + 메가구연산 3병

7g 산삼공진단

사향 / 산삼 / 녹용 / 당귀 / 산수유 (供辰丹)

산삼공진단 효능

항산화 효과 미네랄 폴리페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수험생
스트레스 만성피로 증후군
원기부족, 기억력 향상
신경과민, 불면증, 우울증
허약하고 오장육부 기능저하
과음으로 지친 간기능 회복
갑상선 기능저하, 갑상성 항진증
허약체질 및 성장발육 부진
중풍 후유증,
혈액순환 장애, 고혈압

"7그램 산삼공진단
확실한 자이가
있습니다!"

10환
~~\$1,000~~
\$500



7그램 산삼공진단
상대가 이어온 장인의 손길이 가득함

1캡슐 750mg 대용량 60 베지캡슐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60 v-caps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 분말
엄선된 미국 야생산삼을 상온 건조하여 삼삼삼포하여
분말로 가공하여 담았습니다.

100% 레몬 추출 구연산
레몬에 3% 함유된 구연산을 추출하고 천연 레몬 비타민 C가
혼합된 최상급 구연산

소나무 식이유황
소나무 송진을 가공하여 분리 추출한 식이 유황



750 mg 대용량 베지 캡슐

간기능 개선 / 피로 회복

각종 결석 예방 / 노화 개선

위, 장 건강 / 혈관 청소

\$45.00
+Tax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셔니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메가구연산
3병**

~~\$135~~
\$110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갈비 건너편)

전화 주문
상담 환영

213-277-8866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산삼이 들어가 더 뛰어난 효능!!

흔히 만병통치약이라 불려지는 산삼은 옛부터 동양의 여러 고전 의서에 그 효능과 다양한 질환 치료에 사용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 천종산삼은 간기능을 단기간에 촉진하여 신진 대사를 높이는 탁월함으로 다양한 약재와 좋은 궁합으로 혼용되어 그 효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천종산삼 여주

120 베지캡슐

당뇨, 통풍
류머티스, 아맹증
피부병
천연인슐린



~~\$45~~
\$45

민들레/영경귀/천종산삼

100 베지캡슐

간기능 개선
지방간
만성피로
혈액순환



~~\$48~~
\$48

"하늘이 주신 신비의 식물, 시서스!"

산삼 시서스

120 베지캡슐

뼈, 관절 건강
체질 개선
지방증가 억제
지방 분해



~~\$55~~
\$55

에키네시아/산삼

120 캡슐

당뇨 /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강화
각종 알러지 예방/치료



~~\$55~~
\$55

노루궁뎅이 버섯+산삼

"치매 예방 및 완화 특효" 120 캡슐

Lion's Mane Mushroom
보미. 유럽의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치매
알치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65~~
\$65

울트라 콜라겐

90 캡슐

콜라겐 (Fish / Bovine)
천종산삼 / 천연 식이 유황
히알루론산 액기드
피부/손톱/모발건강
관절/뼈건강
장 건강
두뇌 건강
체중 조절



~~\$65~~
\$65

동의보감의 전통적인 의학 그대로

산삼경옥고
산삼, 지황, 복령, 당귀

동의보감 경옥고 전통방식 그대로
산삼, 지황, 복령, 당귀 그리고
토종꿀을 섞어 수십차례 중탕을
반복하여 진한 원액 그대로
담았습니다. 산삼경옥고는 황제가
일일보약으로 강복하여 전병을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데 쓰였고 신진대사
회복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증진 혈뇨
신장 건강 항암 방광염 요실금 폐건강

600g
~~\$500~~
\$500

NK 면역세포 최대 250%까지

산삼후코이단
450mg 120 캡슐

간기능 향상
장건강 / 위 기능 회복
심혈관 질환 치료/예방
암세포 제거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혈당 상승 억제
면역력 증진

2개월분
~~\$310~~
\$310

**산삼
아나볼릭**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조루 / 전립선 개선

12정 24정
~~\$85~~ ~~\$150~~
\$85 **\$150**

天參濃縮液 **천삼 농축액**

산삼을 진하게
우려낸 건강 비법

300g/60일 복용
기력부진 / 식욕부진
면역력진 / 활력증진
신진대사 / 소변개선
수면장애 / 각종알러지 개선
선조들의 장수 비결

\$240 \$300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제품 홍보 및 이벤트를 유명 미디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부시다』
-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짭』



몽타즈

김준철

기억해 낼 수 있는 것만을 기억해야 한다

모 회사의 광고처럼
'완벽한 방음으로 세상을 격리한
사시창문 안의 사람들

그들은 필요 이상의 잡음을 거부한다

바람의 흔들림이
가지고 있는 온기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있는
통신부호들을
무언극의 영상 속에
고스란히 밀봉한 채
그들은 전원을,
커튼을 내린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앞을 지나
사시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잡음같은 얼굴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일상이 있다

우린 아무 것도 보아선 안된다



우리의 일상은 완벽한 안전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더 엄밀히 '우리'를 나눈다면 결국 자신의 안전일지도 모른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먹고 싶은 것만을 먹는 세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린 안전하게 또 원하는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안전하게 침투하여 지시를 내리는 많은 매체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디렉션을 애써 편리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우리의 편리함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 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 | |
|---------|------------|-------------|
| 크레딧점수 | 1 점 ~ 29 점 | 30 점 ~ 39 점 |
| 매월 프리미엄 | \$ 505 | \$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74.70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Lic # CA 0F07964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 Income & Resources | Single | Couple |
|--------------------|----------|----------|
| Monthly Income | \$1,822 | \$2,465 |
| Asset Limit | \$16,600 | \$33,240 |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 0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 (김예자)

Lic #: 0F07964

562.640.0643

714.773.2939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872.9377

철용성 같은 '세플러의 벽'...누구도 넘지 못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이나 소름을 유발하는 대역전극을 기대했던 골프 팬들이 많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코티 세플러(28·미국)의 골프는 철용성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제88회 마스터스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역대급 명인' 반열에 오른 세플러를 향한 경탄 뿐이다.

골프와 아내 메리디스, 교회밖에 모르는 세계 랭킹 1위 세플러가 1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7언더파 2위 루드비그오베리(스웨덴)를 4타 차로 따돌리고 2년 만에 그린재킷을 탈환하면서 우승 상금 360만 달러(약 50억 원)를 거머쥐었다.

이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보기 3개)로 4타를 줄인 세플러는 2020년 첫 출전부터 마스터스에 다섯 번 나가 두 번 우승했다. 역대 마스터스 최소 경기 2승 기록 중 2위에 해당한다. 호턴스미스(미국)의 '3전2승(1934·1936년)' 다음이다. 나이로는 잭 니클라우스(미국), 타이거 우즈(미국), 세베 바예스테로스(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어린 나이에 2승. 최근 3년간 세플러의 마스터스 성적은 우승, 공동 10위, 우승이고 5년간 최악이 첫해의 공동 19위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세플러의 우승을 막아설 사람은 경쟁 선수들이 아니라 곧 태어날 첫아이인 것 같았다"고 썼다. 세플러는 첫날 1타 차 단독 2위에 오른 뒤 "만삭의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면 대회 중이라도 집(델러스)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했었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아빠의 일을 기다려줬다. 세플러는 "아내

없는 한 주는 정말 길었다"며 "마스터스를 한번 더 제패하는 것과 아이를 만나는 일 모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다. 아버지로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는 말을 남기고 델러스행 전용기에 올라탔다.

1타 차 단독 선두로 시작한 세플러는 콜린 모리카와(미국)와 오베리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한 뒤 8번 홀(파5)에서 3m 버디로 달아났고 9번 홀(파4)에서는 102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으로 '샷이글성 버디'를 보냈다. 10번 홀(파4)도 3m 버디. 중반 세 홀 연속 버디 뒤 세플러는 2타 차 단독 선두가 돼 있었다. 그는 "아이언 샷이 썩 좋지 않았는데 9번 홀이 기점이 됐다. 후반 9홀은 아주 좋았다"고 돌아봤다. 그의 말대로 후반은 편안했다. 153야드 남기고 친 14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탭인 버디로 연결해 네 홀 남기고 3타 차를 만든 뒤 16번 홀(파3) 3m쯤 되는 퍼트를 넣어 4타 차로 벌리며 우승을 예약했다.

'마스터스 전문가' 세플러는 "쟁쟁한 선수들이 쫓아오고 있었기에 후반에 파만 계속해서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이언 샷을 떨어뜨려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유리한 그리핀의 경사를 기막히게 이용했고 부담스러운 거리의 퍼트를 잘도 넣었다. 지난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퍼트로 얻은 이득 타수 부문 162위에 처했던 세플러는 퍼팅 코치 필 케니언을 만난 뒤 180도 바뀌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추천으로 맬릿형 퍼터인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투어X로 교체한 것도 적중했다. PGA 투어 최근 4개 대회 성적이 우승, 우승, 공동 2위, 우승이다.

시즌 초반인데 상금이 벌써 1500만 달러(약



스코티 세플러(왼쪽)가 15일 마스터스 시상식에서 지난해 우승자 온 램이 입혀주는 그린재킷을 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207억 원)를 넘어섰다. 지난 시즌 상금은 약 2100만 달러(약 290억 원). 그런데도 세플러는 앞보다 다 닳은 낡은 구두를 애용하고 주행거리 30만 km 이상의 2012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몬다.

세플러의 캐디는 성경 연구 모임에서 만난 테드 스콧이다. 캐디가 받는 우승 보너스는 상금의 10%가 보통. 스콧은 세플러의 시즌 3승에 우승 보너스로만 121만 달러(약 16억 7000만 원)를 챙긴다.

오베리는 마스터스 데뷔전에서 단독 2위를 차지하며 투어 최고 신성임을 확인했다. LIV 골프 소속으로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브라이

슨 디샴보(미국)가 2언더파 공동 6위로 가장 잘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2오버파 공동 16위의 안병훈이 최고. 매킬로이는 4오버파 공동 22위에 그쳐 커리어 그랜드슬램(4대 메이저 석권)을 또 다시 미뤘다. 우즈는 트리플 보기 등으로 5타를 잃어 컷 통과자 가운데 꼴찌인 60위(16오버파)로 마감했다. 이날이 마스터스 100번째 라운드였던 우즈는 14개월 만의 '72홀 완주'에 만족했다. 그는 "그래도 좋은 한 주였다. 다음 달 있을 PGA 챔피언십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 - 양준호 기자〉

마스터스 100번째 라운드 끝까지 완주...14개월 만 72홀 완주



26번째 마스터스 완주에 성공한 타이거 우즈.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6번째 마스터스 완주에 성공했다. 그는 마스터스에서 24개 대회 연속 컷통과에 이어 100번째 라운드라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60명의 선수 가운데 정확

히 60위 끝까지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설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우즈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

스타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5오버파 77타를 쳤다. 나흘 동안 16오버파 304타를 적어낸 우즈는 60위라는 '타이거' 답지 않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304타는 우즈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써낸 최악의 스코어다. 3라운드에서 10오버파 82타로 부진했던 게 결정타였다. 최종 라운드에서 우즈는 버디는 1개밖에 잡아내지 못했고, 트리플보기 1개와 보기 3개를 곁들였다.

이날 우즈는 아들 찰리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드라이빙레인지에서 샷을 점검했다.

경기 시작은 좋았다. 1번 홀(파4) 파에 이어 2번 홀(파5)에서는 버디를 잡아내며 반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5번 홀(파5)에서 치명적인 티샷 미스에 3퍼트까지 더해지면서 트리플 보기를 범했다. 이후 최선을 다한 우즈는 보기 1개만 범했고 모두 파로 막아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골프 황제'의 마스터스 완주의 의미가 크다. 큰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우즈는 불굴의 의지

로 고통스러운 치료와 재활을 견뎌야 했다. 이후 복귀했지만 성치 않은 몸 상태 탓에 걸어서 72홀을 마치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 이번 대회 72홀 완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에서 무려 1년 2개월 만이다.

우즈는 작년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완주한 이후 두차례 대회에서 모두 중도 기권했다.

우즈는 "전반적으로는 대회를 잘 치렀다. 한 동안 정규 투어 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1, 2라운드는 좋은 경기를 했다"고 스스로의 플레이를 평가했다.

그는 "3라운드부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됐다"고 덧붙였다.

마스터스 72홀 완주를 통해 그의 건재함을 보여준 우즈는 5월 17일부터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도전할 전망이다.

〈서울경제 - 이종호 기자〉

LA 최상의 LPGA 골프대회가
2024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Wilshire Country Club 에서 열립니다.



LA CHAMPIONSHIP

PRESENTED BY PLASTPRO®



JM Eagle | DELIVERING GOOD WATER TO YOU

티켓은 지금 **올림픽 골프 전 매장** 또는
JMEagleLAChampionship.com 에서 구매하세요!

(17세 이하 어린이는 유료 성인 동반 시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LPGAgoesHOLLYWOOD

동강청정 다슬기로 ‘간 건강’ 잡으세요!

▶ 100% 자연산 사용·간 기능 회복에 효능

한인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식품 장수만세’ (대표 프레드 한)가 한국산 ‘다슬기 기름’을 출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수만세 프레드 한 대표는 “깊은 산골, 물 맑은 곳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간에 좋다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며 “서제천영농조합이 **100% 자연산 다슬기**를 위생적인 최신 설비를 활용해 추출한 다슬기 기름, 정확히 말하면 다슬기 엑기스 제품”이라고 말했다.

최신 설비라고는 하지만 제조 방법은 전통 다슬기 기름 제조 방식을 따라 **황토 용기에서 72시간 동안** 고열을 가해 만들어 낸다고 한 대표는 덧붙였다.

다슬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자재로 작지만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다슬기는 **타우린 함량이 높아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민물의 웅담**’이라고 불릴 정도다. **타우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간에서 숙취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 해장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것도 다슬기에 풍부한 타우린 덕분이다.

다슬기에는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클로로필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해줌으로써 **장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는 **다슬기의 철분** 때문이다. 철분은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준다.

다슬기는 혈관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 **엽록소 성분이 식물보다 10배나 더 많은 다슬기**는 혈관 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주고 **콜레스테롤을 분해, 제거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한 다슬기는 뼈 건강에도 좋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을 돕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A가 많은 다슬기는 눈이 충혈되거나 눈 통증을 다스려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

문의전화 : 213-559-7800



'세상을 바꾼 자 모두의 표적이 되다'... 주지훈의 액션

홀루 '지배종' 군인 출신 경호원 변신, 인공 배양육 다룬 서스펜스 스릴러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지배종'에서 퇴역 장교 출신의 경호원 우재운 역을 맡은 주지훈. <디즈니 코리아 제공>

배우 주지훈이 딱 맞는 옷을 입었다. 테러 사건의 배후를 쫓는 전직 군인 출신 경호원 '우재운'이다. 생명공학기업 BF 대표의 경호원을 뽑는 VR(가상 공간) 테스트에서 '우재운'의 액션은 주지훈이기에 더 강렬하고 돋보였다. 3회에 등장하는 17대 1 액션신은 말할 것도 없다.

홀루(Hulu)에서 4회까지 공개된 드라마 '지배종'(영어 제목 Blood Free)은 2025년 새로운 인공 배양육의 시대를 연 BF의 대표 윤자유(한효주)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퇴역 장교 출신의 경호원 우재운(주지훈)이 의문의 죽음과 사건들에 휘말리며, 배후의 실체를 쫓는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다. BF는 Blood Free의 이니셜로 피 흘리지 않는 고기, 배양육을 만드는 기업이다.

주지훈은 "지배종은 다소 무거울 수 있거나 깊이 생각해야 하는 주제를 작품에 녹여내면서도 진입장벽을 낮춰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때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며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써내려가셨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 8일 제작발표회에서 말했다.

17대 1 액션신에 관해서 주지훈은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가 조금 높지만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찍었다"며 "근미래의 설정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느낌의 액션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땅에 붙여야 이야기가 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액션 장르를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다. 합이 화려한 액션보다는 실제와 비슷한 액션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도 부

상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도 열심히 찍어 봤다"고 전했다.

디즈니 코리아가 서면 공개한 작가와의 일문 일답에서 우재운 역할에 대해 이수연 작가는 "가장 중점을 둔 점은 한마디로, '재운이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였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재운이 멋있게 비춰지는 게 중요했다. 과거의 아픔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 군인에서 경호원이 된 직업적 특성, 이런 설정에서 풍겨 나오는 매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설정 보다 강한 게 캐릭터를 연기할 배우 분의 매력인데, 주지훈 배우를 처음 봤을 때 '꼭 저분이 하셔야 하는데'란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캐스팅이 확정된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었는데 미팅 자리에 (주지훈) 배우가 먼저 나와 앉아 있어서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액션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 배우가 갑자기 일어난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 작가는 "그때 '우와 재운이다, 꼭 저분이 해야 한다, 까이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게 떠오른다"며 "처음엔 그렇게 외형적인 면에서의 인상이 짙었다면, '우재운' 역할을 주지훈 배우님께서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절감한 건 그 다음에서였다. 한 회 한 회 대본을 써가던 진행 과정에서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어 '우재운'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주지훈 배우님의 덕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주지훈은 그런 배우다. 자신이 출연하는 장면이 아닌데도 늘 촬영장을 지키고 연기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하다. 주지훈은 한효주와 호흡을 맞춘데 대해서 "단단하고 밀도 높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해도 그렇고 호흡을 나눌 때 우직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효주씨한테 기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효주가 맡은 '윤자유'는 전 세계 배양육 시장의 지배자이기 전 세계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원수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윤)자유'를 증오하고 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유'는 본인 을 향한 거센 도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전진'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인류는 불완전한 지배종이야. 완벽해지려면 사슬을 끊어야 해. 먹이사슬에서 인류가 해방돼야 해. 여기서 끊는 거야. 우리가 있는 데서."라는 윤자유가 힘있게 던진 대사가 '지배종'의 핵심 메시지다.

자유와 채운 외에 외무부 서기관으로 출발해 UN 대표부와 정당 대표를 거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선우재(이희준)와 윤자유'의 대학 동기이자 BF 그룹의 배양액 기술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생리학 박사 '온산(이무생)'도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를 통해 이수연 작가와 호흡을 맞췄던 박철환 감독은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라서 현실성 있게 보이는 게 중요했다. 찍을 때만 해도 AI(인공지능)가 이렇게 화두가 될 줄은 몰랐다"며 "배양육이나 AI 기술이 실제로 있긴 하다.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실제 기업들을 참고하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은 "이수연 작가는 글로 대화를 하시는 분인데 대본에 (작가가) 표현하는 게 다 들어있다. 다만 작가님이 생각하는 세계를 정확히 구현하기 힘들 때가 있다. 글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이 열려있는 작가"라고 덧붙였다.

배우들의 캐스팅에 관해서는 "한 명 한 명 캐스팅 될 때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감탄하면서 프리프로덕션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하은선미주한국일보편집위원·골든글로브협회(GGA)원>



이수연 작가와 주지훈, 한효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디즈니+ 오리지널 '지배종'. <디즈니 코리아 제공>

Lic# 1021077
LG 에어컨 에어컨 새제관매 1등!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Life's Good

에어컨 구입할 때, 겨울철 난방까지 생각하세요!

에어컨의 모든 것!! 300만불 보험 가입 전문업체

가정용부터 기업용까지

SK쿨링에 맡겨 주세요

LG 에어컨 공식 대리점 신용카드 받습니다 정식라이선스 업체 (LIC# 1021077)

SK쿨링 213.364.4000 845 S. Grand View St. L.A., CA 90057

RADIOSEOUL
 www.Radioseoul1650.com

시니어 스페셜 방송

소망의 시간

라디오서울 AM1650 (유튜브 & 앱)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재방송 오후 5시)

VENUS ANTI-AGING CARE
 비너스 엔티 에이징 케어

오~레오레 100년을 위한 삶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 준비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호르몬 치료
 • 나만을 위해 맞춤제제 • 호르몬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마세요
 • 백세시대 준비는 몸 안에서 부터
 • 생체 동일한 호르몬은 몸을 보호해줍니다(Bio-Identical Hormone)

IV 테라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IV테라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IV테라피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치매치료신약
 FDA에서 치료허락을 받은 새로운 약 치매증세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213.739.1025
 266 S. Harvard Blvd., #320 Los Angeles, CA 90004

www.midwilshirehealth.com

MW
중양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양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Cell : (213) 483-9921 Fax :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www.dentwayinc.com

DENTWAY
 www.dentway.kr

자동차 흠집제거

부분도장 Before After
 덴트 복원 Before After
 범퍼복원 Before After

최저(低) 가격+최고(高) 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 day 수리 완료

DENTWAY, Inc.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월 - 금: 8:00 AM - 6:00 PM 토: 8:00 AM - 12:00 AM
Tel. 213.383.7233 칠 이 삼 삼 합니다.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추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차 사고엔, 차 변호사
PERSONAL INJURY

레몬법엔, 차 변호사
LEMON LAW

ALEX CHA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MORTGAGE ONE GROUP

앤드류 최를 만나면
 융자가 편해집니다.

(323)686-1004
 andrew.choi@mtgog.com

NMLS# 1558633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d in CA, CO, GA, IL, NV, TX, WA and VA

MORTGAGE ONE GROUP 8383 Wilshire Blvd. #800 Beverly Hills, CA 90211

장례보험 전문 플래너
 since 1995

Future Planner
 조 마리아
 PROFESSIONAL FUNERAL PLANNER

화장, 매장, 해외 장례서비스, 장례보험, 무료상담

“장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오랜경험의 한국 전통 장례 전문가와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310)987-0736 mariachofp.com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는
밥 한 끼 먹으러 **웨스턴 도마 칼국수**로 간다



은대구 조림

양념장으로 감칠맛을 더해
다른 반찬이 필요없는 맛

닭볶음탕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국물과
신선한 닭의 환상의 맛



해물파전

신선한 해물과 야채를
들쭉 넣어 풍부한 맛



아귀찜

부드러운 아귀와 콩나물,
미더덕의 환상의 만남



갈비구이

달콤한 간장 베이스 양념과
부드러운 갈비 살



비빔밥



삼계탕



열무국수



뚝배기 불고기



떡만두국

웨스턴 도마 칼국수

Western Doma Noodles

Tel. (323) 871.1955

TOGO 가능 합니다.

영업시간: 10 am ~ 10 pm
(7 Days Open)

429 N. Western Ave, #10
Los Angeles, CA 90004

Rosewood Ave



도마 칼국수
Beverly Blvd

Western Ave

비가 오는 밤이면 자주 생각나는 The Doors의 명곡 'Riders on the Storm'과 수많은 커버 버전들...!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우리가 살고있는 L.A. 근교에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던 때가 있었는가...? 예전에는 이곳에 살며 “비 한번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비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지만 기후가 변해가는지 요즘에는 특하면 비가 내리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말에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주말 골퍼들의 한숨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 비에는 특별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분명 소음이 맞지만 이상하게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빗소리... 차갑고 습기차지만 상쾌한 공기와 거기에 섞여있는 흙냄새와 물냄새...! 그런 밤이면 생각나는 곡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 나에게 The Doors의 명곡 'Riders on the Storm'이 가장 자주 떠오른다.



먼저 빗소리로 시작되고 천둥소리가 이어지는 곡...! 그리고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의 ritual 세레머니가 연상되는 저 유명한 베이스 리프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을 묘사하는 듯한 키보드 연주가 이어지고, 매우 vintage스러운 트레몰로 이펙트가 걸린 일렉트릭 기타와

함께 너무나도 멋진 Jim Morrison의 목소리로 'Riders on the Storm'이라고 읊조릴 때부터 이미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재즈에 영향을 받은 Ray Manzarek의 천재적인 키보드 솔로와 세련되고 절제된 테크닉으로 키보드와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Robby Krieger의 멋진 기타 연주 등등 이곡이 레코딩 되었던 70년대 초반의 레코딩이라고는 믿기 힘든 매우 앞서나갔던 명곡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The Doors라는 밴드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자... 록 음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밴드지만 일단 전형적인 록 밴드의 악기구성과는 조금 달랐다. 베이스 주자가 따로 없이 키보드리스트 Ray Manzarek이 'The Doors 사운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몽환적이고, 때로는 재기 넘치는 연주를 오른손으로 하는 동시에 왼손으로는 베이스 파트를 키보드로 연주하는 그 어떤 다른 밴드에서 찾아 볼 수 없던 독특한 방식의 악기 구성이었다. 이들이 그 구성을 고집했다기 보다는 이들과 의기투합할 멤버를 구하지 못해서 했던 궁여지책에 가까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나름 굉장히 개성 강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들의 다섯번째 앨범인 [Morrison Hotel] (1970) 부터 베이스 연주자를 따로 고용하기 시작하기 전부터는 그 포맷을 유지해 왔다.

음악 스타일은... 고전적인 록 음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밴드들인 Led Zeppelin, Deep Purple, Black Sabbath 등등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일렉트릭 기타 리프를 중심으로 하지않고 키보드를 전면에 내세웠고 블루스, 포크, 등등 미국의 전통음악에 그 뿌리를 강하게 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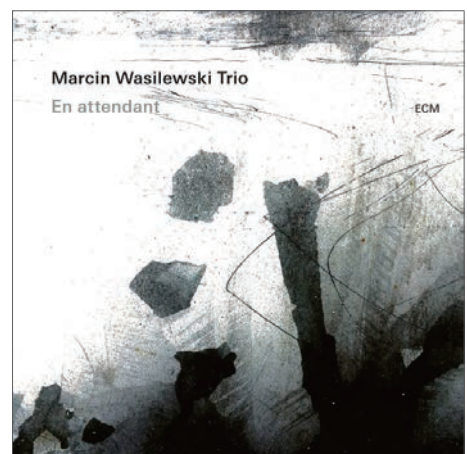
적'인 사운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60년대의 '사이키델릭 무브먼트'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고3시절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끝내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세운상가에서 구한 이들의 데뷔 LP를 들으며 일종의 '충격'을 느꼈던 그 시절이 잠깐 떠오르게 된다!

밴드의 중심인 Jim Morrison에 대해 얘기할 수 없을 수 없겠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무대위에서의 각종 기행을 하는 등 파격과 반항으로 점철된 삶을 그가 27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보냈지만 그가 남긴 시적인 가사들과 무대에서 읊조렸다는 수많은 즉흥 시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다른 감수성을 지녔던 정말 매력적인 록 역사의 '아이코닉' 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의 중심이 되어야 할 'Riders on the Storm'이 그가 살아생전에 발표하게 된 마지막 레코딩이었다는 점도 감회가 다르게 한다..!

The Doors와 이곳 L.A. 근교와의 관계도 매우 깊다고 하겠다. 짐 모리슨은 플로리다주 태생이지만 이곳 U.C.L.A.의 영화학과를 졸업했고 재학시절 같이 U.C.L.A.를 다니던 중심 멤버였던 Ray Manzarek을 만났고 또 이들이 다시 재회하여 밴드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던 곳이 베니스 비치였다고 한다. 또한 West L.A.의 명소인 수많은 유명 뮤지션들이 공연했던 나이트 클럽 'Whisky a Go Go'에서 근처상간을 다룬 이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명곡 (과연 이곡을 명곡이라 부르는게 맞지는 모르겠으나...!) 'The End'를 부르다 주인에게 해고를 당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도 있다.

'Riders on the Storm'은 The Doors의 곡 중 가장 여러 아티스트들에 의해 자주 커버되는 곡중 하나이기도 여러 커버버전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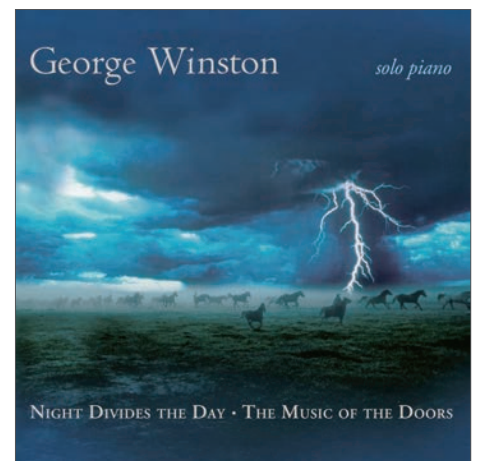
1. Marcin Wasilewski Trio의 2021년도 ECM 레코딩.



폴란드의 재능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Marcin

Wasilewski와 그가 이끄는 트리오가 발표한 버전으로 그의 모든 특징이 한 곡으로 잘 대변되어 있다. 절대 튀지 않는 절제미로 아주 살짝만 원곡의 시그내처 멜로디를 비틀어 원곡의 에센스는 살렸지만 매우 세련된 ECM 풍의 유려피언 재즈의 진수를 들려준다.

2. George Winston의 2002년도 The Doors의 곡들만 커버했던 앨범 중에서...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George Winston이 맞다. 우리 상식에는 The Doors의 대척점에 있는 George Winston이 왜 갑자기 The Doors에 꽃혀서 이 앨범을 발표했는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 당시 발표만 하면 기본적인 판매고를 냈던 George Winston이 고집을 부리니 음반 제작자도 두 손을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레코딩이 감상자들에게는 꿀잼이 아닐까...! 뭔가 인디언의 주술적인 면이 가장 극대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듯..

3. 독일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Lisa Bassenge 2015년 레코딩



우선 녹음이 매우 출중하고 원곡의 에센스에 가장 충실한 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나오는 트럼펫 연주도 매력적이다!

frisell66@gmail.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영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www.iminusa.net

Email: imin@iminus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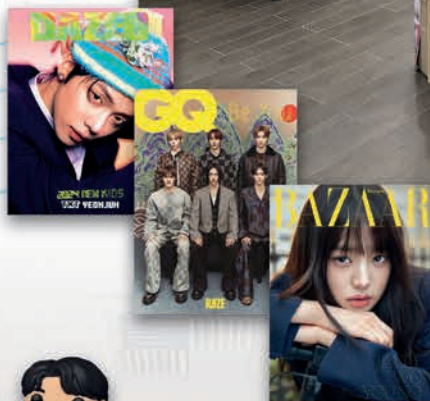


musicplaza.com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오늘 저녁 이 노래 한 곡

Stand Tall Burton Cummings



Never been this blue
Never knew the meaning of a heartache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앓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But then again, I've never lost at love
before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난 사랑에 져본 적이
없어요

Somewhere down the road
Maybe all these years will find some
meaning

길 아래 어딘가에
어쩌면 이 모든 세월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I just can't think about it now, or live 'em
out anymore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살 수도 없
어요

Stand Tall, don't you fall oh, don't go and
do something foolish
You're feeling it like everyone, 's silly hu-
man pride

일어나세요, 넘어지지 말고, 바보 같은 짓 하
지 말아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자부심입니다

Stand Tall, don't you fall. don't go do
something you'll regret later
You're feeling it like everyone, it's silly
human pride

일어나세요, 넘어지지 말고, 바보 같은 짓 하
지 말아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자부심입니다

Never lasted so long
Or through so much - or through so
many

이렇게 오래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일들을 겪거나 많은 일들
을 겪거나

I just can't believe I could throw it all
away

내가 그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
아요

Sometimes late at night
When there's nothing here except my
old piano
I'd almost give my hands to make you
see my way

가끔 늦은 밤에
내 낡은 피아노 말고는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이 내 길을 볼 수 있도록 거의 손을 내
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기억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소설의 가사에 그녀와 나의 추억이 담기고, 한 음절의 멜로디에 그이와 나의 그림이
묻어져 버린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을 이 지면에 담아 본다.
H매거진이 추천하는 이 노래 한 곡, 오늘 저녁 와인이나 차 한잔 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
앱 더 나아가서 음반을 구입해 들어보며 기억과 함께 쉬는 시간을 권한다.

1960년대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캐나다 출신 rock그룹 GUESS WHO (게스후 - These Eyes, American Woman, No Time 등이 히트곡)에서 리드 보컬을 맡았던 Burton Cummings (버튼 커밍스)가 솔로로 1976년 발표해서 미국 탑 차트 10위권 까지 진입 히트했고 한국에서는 대입 수험생 특히 재수생들,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아마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꿋꿋이 일어서라는 제목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가사를 보면 헤어진 자신을 떠나간 연인에게 울부짖는 노래인듯 한데,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는 듯한 공익광고 같은 노래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도 시대적 배경이 그랬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California Dream for Some Part 8"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20%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인 Dream For All 의 2024년 시행이 발표되어지고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될 때와 다르게 많은 첫집을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 기관이 나름대로 강화되어진 자격조건과 반드시 필요한 내 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등을 안배하였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4월3일 오전 8시에 내 집을 갖겠다는 희망속에 주정부에서는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29일 오후 5시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융자 전문가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으시고 주정부의 주어진 양식에 "사전승인서"를 융자전문가가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주정부의 공식 신청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20% 보조의 Voucher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인의 Profile을 만드시고 등록하시며, 주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실 때 융자전문인으로부터 서류심사를 받으신 가족 혹은 융자에 참여하실 분들의 모든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전문 융자인이 심사하고 발행한 사전승인서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정부 기관과 신청인 사이에는 모든 연락이 이메일로 오고가므로 자주 이메일을 점검하셔서 혹시 요청받은 서류들을 간과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발기간은 4월29일 오후 5시에 접수를 종료하며 다시 몇주간 주정부 기관에서 서류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이메일로 선발 소식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으로 선발이 되어지면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Voucher 를 집의 계약서에 함께 첨부하여 캘리포니아 정부가 다운페이로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집을 계약하실 수 있으며, 선발되어진 이후 90일의 시간이 주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실 수 있으며 계약이후 에스크로를 열고 모기지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전처럼 허겁지겁 줄속으로 진행되는 일이 이번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아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앤드류 최
Mortgage Loan Originator

▲ (323)686-1004
andrewchoi.mlo@gmail.com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 최근 엘에이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차가운데도 난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 남을 위한 '책임보험' 과 ● 나를 위한 '자차보험'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간 충돌이외 보상' 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 충돌이 아닌 사고에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 앞차에서 튕겨나온 돌에 의한 전면 유리 파손 ●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 대인배상과 ● 대물배상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 (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기에 조금 높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는 ● 본인 차량 보상 ● 무보험자 보험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알렉스 차
Personal Injury

▲ 213-351-3513
www.alexchalaw.com



Beverly Hills Office
6330 San Vicente Blvd. #510
Los Angeles, CA 90048

Headquarter
14241 Firestone Blvd #210,
La Mirada, CA 90630

앤드류 최를 만나면 융자가 편해집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주택구매융자 | 재융자 | FHA | 리버스모기지

323.686.1004 andrew.choi@mtgog.com



Licensed in AZ/CA/GA/IL/NV/TX/VA/WA
Licensed by the 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 under the California Residential Mortgage Lending Act, [NMLS#882728]

APPLY NOW!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진 한 장 내게 행복을 준 거북이마라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설명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격주 화요일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분**께서는 **3731 Wilshire Blvd. #1000 LOS ANGELES**로 **5월 3일까지 ID지참 방문**하셔서 소정의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주제와 소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인물사진과 같이 초상권,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내주실 곳 e-mail | h@koreatimes.com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 담당자 앞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 마라톤에 강원도민회 회원 18명과 함께
참가했다.
신나고 상쾌했다.
강아지도 따라 나섰다.
모처럼 편안한 산행에서 내 우울증을 산 너머로 날려 보냈다.
하늘은 푸르고
코리아타운은 활기차고
그래. 이 소소한 행복이 이제 찾아왔구나

Rose Han | wooyounhan@yahoo.com



지윤철학원

띠별로 보는 주간 운세 4월 23일 - 5월 6일

| | | | |
|---------------|---------------|---------------|--------------|
| 지윤철학원 상담전화 | (213)739-2877 | 지윤철학원 웹사이트 | askjiyun.com |
|---------------|---------------|---------------|--------------|

쥐띠 - 행운이 함께 하고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29, 1, 4일 길일. 24, 27, 3, 6일 주의.

소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3, 27, 29, 5일 길일. 25, 28, 1, 4일 주의.

범띠 - 현실에 만족하고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4, 28, 3, 6일 길일. 23, 26, 29, 5일 주의.

토끼띠 - 시야가 환해지면서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금전: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5, 28, 29, 2일 길일. 24, 27, 30, 6일 주의.

용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젯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27, 30, 2일 길일. 25, 28, 29, 1일 주의.

뱀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7, 1, 4일 길일. 26, 28, 29, 2일 주의.

말띠 - 짚고 넘어가야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짚고 넘어가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25, 28, 2, 5일 길일. 27, 30, 1, 3일 주의.

양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금전: 돈이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9, 3, 6일 길일. 28, 30, 1, 4일 주의.

원숭이띠 - 활기를 찾게 되는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 문제에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28, 30, 4일 길일. 29, 2, 3, 5일 주의.

닭띠 -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입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1, 4, 5일 길일. 30, 2, 3, 6일 주의.

개띠 -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 3, 6일 길일. 25, 1, 4, 5일 주의.

돼지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30, 1, 3일 길일. 26, 2, 4, 5일 주의.



통레몬 그대로

상큼한 레몬과
짜릿한 탄산의 만남



썩레몬의 맛 - 순하리 레몬진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경험하고 입증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 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유방암, 폐암, 위암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한인 암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한 최선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수술 후 관리에 이르는 통합적 진료와 함께, 임상 시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많은 한인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기에,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세심한 맞춤 케어를 통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하면 한계는 없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KeckMedicine.org/KT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